인쇄출판
대흥정판사
대표 이희준
Tel_ 063. 254. 0056~7
E-mail_ hi0056@hanmail.net

대표전화 (063)282-9601
인터넷 jeonbuktimes.co.kr

공감뉴스 전·북·을·세·계·로
전북타임스
The JeonBuk Times

서해크루즈
석도훼리 전북 대리점
실장 이진순
군산항 ⟷ 중국위해 석도항
주 3회 운행
H 010.8375.8426
E long2030@hanmail.net
F 063.212.9888

2026년 7월 29일(수) 제 3371호

전북도, 현대차 새만금 투자 이행 기반 구축 총력

전북특별법 개정·특구 지정 속도
AI·로봇·수소 투자기반 구축
주거·교통·인재 다각적 지원
2029년 투자 이행 본격화

전북도가 정부 '새만금·전북 대혁신 TF'의 종합지원책에 맞춰 현대차그룹 새만금 투자 프로젝트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전방위 지원체계 가동에 들어갔다.

도는 관계부처 및 현대차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분야별 세부 추진 및 제도 개선을 위한 협의를 이어가는 한편, 지난 4월에 발의된 '전북특별법' 3차 개정안의 연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이를 통해 로봇, AI 데이터센터, 수전해플랜트 등 현대차의 핵심 미래 사업이 새만금 현장에서 즉시 이행될 수 있도록 행정·제도적 기반을 속도감 있게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메가특구, RE100 산단,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기회발전특구 등 정부 주요 특구 지정에 도정 역량을 집결하는 동시에, 로봇 기반 소부장 특화단지 및 수소 특화단지 등 중앙부처 공모 사업에도 빈틈없이 대응하고 있다. 도는 이러한 개별 과제들을 하나로 묶어 현대차 투자와 직접 연계하는 '종합 패키지 방식'으로 지원체계를 일원화해 투자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구상이다.

핵심 투자 분야별 지원도 한층 구체화되고 있다. AI 데이터센터 분야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행·재정적 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도 차원의 세부 지원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할 예정이다.

로봇 분야는 로봇부품 전용 시험·인증센터 구축과 협력사를 위한 상생형 임대공장 및 물류창고 공급을 통해 로봇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차질없이 이행한다. 또한 현대차에서 생산된 수소의 원활한 유통을 위한 수소배관망 구축 사업도 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청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사업 구체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규모 투자에 따른 근로자 유입과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뒷받침하기 위해 주거·교통·생활 인프라 개선도 대폭 강화한다.

도는 특화형 공공임대주택 공모 참여와 수요응답형 교통체계(DRT) 도입을 국토교통부, 새만금개발청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 아울러 현재 주거·교육·의료 현황을 현대차 측과 다각도로 공유하며, 근로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주 여건을 선제적으로 만들어갈 계획이다.

기업이 필요한 적기 인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맞춤형 인력 양성 체계 구축에도 박차를 가한다.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를 활용해 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실무 인재를 배출하고, 지난 20일 '전북도-전북대학교-현대차'간 3자 업무협약을 체결해 로봇·AI 등 첨단산업 분야의 공동연구 및 기술협력을 본격화했다.

현대차그룹은 프로젝트별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과 이사회 승인 절차를 거쳐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한 뒤, 오는 2029년 설비 준공을 목표로 새만금 투자를 본격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도는 현대차의 투자 일정에 맞춰 관련 인프라 공급 및 행정 절차가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정밀한 스케줄 관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양선화 전북자치도 미래첨단산업국장은 "관련 제도 개선과 특례 확보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것은 물론, 주거·교통·인재 양성에 이르는 전방위 종합 지원 패키지를 차질 없이 가동해 현대차의 투자가 조기에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결하겠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합수본 "신천지 민주당 가입 진술 확보"

탈퇴 신도 "간부가 가입 권유"
총회 차원 조직지시 확인 안돼
민주당 가입 경위 수사 계속
전대 신천지 공방 격화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당대표 후보가 제기한 '신천지의 신도의 민주당 집단 입단 사태'가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정교유착 합수본에 따르면 수사 과정에서 신천지에서 탈퇴한 일부 신도가 '2022년 말경 지파간부가 신도들에게 A정당(국민의힘)에 가입하라고 했고, 신도들이 거부감을 표시하면 B정당(민주당)에도 가입하라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있었다.

해당 간부는 시몬지파 청년회장으로, 경기 고양시를 중심으로 서울 서북부와 경기 북부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본은 "A정당과 관련해서는 신천지 총회 차원에서 당원 가입을 지시하고 지파별로 가입 인원을 할당하고, 가입 현황을 취합하는 등 조직적으로 당원 가입을 강요한 반면 B정당은 총회 차원에서 조직적 당원 가입을 강요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부연설명했다.

그러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B정당(민주당) 가입 관련 진술을 확보하고도 관련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며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김민석 당대표 후보는 민주당에 신천지 집단 입단 사태가 있었다고 문제를 제기했고, 정청래 대표계인 이성윤 의원 등은 증거를 제시하라면서 증거가 없다면 김 후보의 사퇴를 촉구하는 등 민주당 전당대회가 신천지 입당 사태로 얼룩지고 있다.

/서울=김영묵기자

전주 북부권 과학로 확장 전주시가 북부권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 중인 과학로 확장사업 위치도. 시는 백석저수지~전당사거리 660m 구간을 우선 확장하고, 이후 전당사거리~회포대교 1.44㎞ 구간까지 순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오는 2027년 완공할 계획이다.(관련기사 3면) <사진=전주시>

전북, 5극3특 관광광역화 선제 대응 착수

정부 관광권 재편 발맞춤
전북형 K-관광개발 구상 착수
시군 연계 관광벨트 구축

전북도가 정부의 초광역권(5극3특) 기반 관광권 정책에 맞춰 관광산업 대응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28일 도에 따르면, 정부는 행정구역 경계를 넘어 관광객의 이동 동선을 중심으로 '관광권'을 설정하고 있다. 관광개발 방식도 정부 주도에서 지자체 주도형 광역관광개발(글로벌 K-관광개발)로 전환되는 추세다. 도는 이에 맞춰 관광권 계획 대응, 지역 K-관광개발 기본구상, 중장기 관광개발계획 수립을 병행한다.

도는 그동안 '1시군 1특화' 기조로 관광자원을 육성해 왔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2,271억 원을 투입해 전주 덕진공원, 군산 근대문화도시 등 14개 시군 대표관광지를 육성했고, 지난해부터 2028년까지 도비·시군비를 절반씩 부담하는 918억 원 규모 명품관광지 조성사업으로 고군산군도 야간관광 명소화, 옥정호 스카이워크, 순창 K-발효관광 명소화 등을 추진 중이다. 2030년까지 4,341억 원 규모 문화관광자원개발사업을 포함하면 관광기반 확충에 7,530억 원 이상 투자된다. 고군산군도 명품관광지 조성, 서해안 블루투어 관광벨트 등 1,487억 원 규모 민선 9기 관광 공약 사업도 추진한다.

도는 이러한 기반을 토대로 5극3특 기조에 맞춘 전략을 추진한다.

먼저 문화체육관광부가 이달부터 연말까지 연구용역을 통해 수립하는 '5극3특별 관광권 프로젝트 계획'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전북의 특화 자원이 관광권 노선에 반영되도록 해 국비 확보로 연결한다는 계획이다.

지자체 주도형 광역관광개발을 위한 '지역 K-관광개발 기본구상' 수립에도 착수한다.

관광대권과 관광소권을 설정하고 총사업비 최대 6,400억 원 규모로 개소당 300억 원 수준의 핵심사업 20개와 연계사업 등을 담는 사업이다. 도는 전북연구원 정책연구와 시군 협업을 통해 지역 수요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고, 오는 12월까지 연구용역을 거쳐 내년 3월 기본구상안을 문체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이를 토대로 내년 말 '글로벌 K-관광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29년부터 사업에 착수한다.

중장기 계획 수립도 병행한다.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적용될 '제8차 전북권 관광개발계획' 수립용역을 전북연구원이 수행하고 있으며, 지난 15일 중간보고회를 거쳐 올해 말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도는 계획 수립 과정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아 5극3특 기조와 국정과제에 부합하는 전북형 관광자원 개발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시군 간 관광자원 연계를 강화하고 도내 체류시간과 지역 내 관광소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신원식 문화체육관광국장은 "5극3특 관광권 재편과 지역 주도 K-관광개발 전환은 시군별로 육성해 온 전북의 관광자원을 세계 관광시장으로 확장할 수 있는 기회"라며 "선제적 대응으로 국비 확보와 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해 세계인이 찾는 관광지 전북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JBT 전북타임스 Jeon Buk Times
2026년 7월 29일 수요일

전북도, 빅데이터로 한우유통 경쟁력 높여

전국 도매시장 분석 차별화 도모
중앙축산물도매시장 경쟁력 강화
출하 특성·경매가격 등 비교 분석
한우 유통기반 확충 방안 도출

전북도가 도내 유일 축산물도매시장인 중앙축산물도매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고 한우 유통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 축산물도매시장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축산물도매시장은 한우농가가 생산한 소를 출하하고 경매를 통해 가격을 형성하는 축산물 유통의 핵심 시설이다. 도는 지난해 12월 문을 연 중앙축산물도매시장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전국 도매시장의 거래와 운영 특성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전북만의 차별화된 활성화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분석은 전북도가 도정 분야별 데이터 기반 행정 역량과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2026년 빅데이터 분석사업'의 하나로, 오는 12월까지 진행된다.

주요 분석 내용은 전국 축산물도매시장에 출하되는 한우의 지역별·등급별 출하 특성과 경매가격, 거래 규모 등이다. 중앙축산물도매시장과 규모나 운영 여건이 비슷한 도매시장을 비교하고, 대규모 시장의 운영 특성과 공판장·민영 도매시장 간 차이도 함께 분석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중앙축산물도매시장의 강점과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한우 출하 물량과 거래 참여자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한다. 도매시장 인지도를 높이고 농가와 중도매인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운영·유통 전략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도는 지난 23일 용역 착수보고회와 전문가 회의를 열어 분석 방향과 정책 활용 방안을 논의했으며, 오는 11월부터 분석 결과를 토대로 도매시장 활성화 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지난 23일 전문가 회의 <사진=전북도>

민선식 전북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전문적인 데이터 분석을 통해 축산물도매시장을 활성화하여 도내 한우농가가 출하처 걱정없이 생산에 전념할 수 있고, 농가, 도매시장과 중도매인이 유기적 상생 관계로 유통 기반이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정철 기자

전북자치도, 휴가철 식품위생 특별점검 강화

배달음식·보양식 업소 점검
해수욕장 등 관광지 집중 관리
575곳 점검…36곳 위반 적발

전북도는 올여름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이어지면서 식중독 발생 위험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휴가철 먹거리 안전 확보를 위한 식품위생 특별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도는 여름철 식중독을 예방하고 안전한 외식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오는 8월 17일까지 배달 전문 음식점과 보양식 음식점, 해수욕장·워터파크·캠핑장 등 다중이용시설 주변 음식점을 대상으로 식품위생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 이용이 증가하는 배달음식과 보양식 취급업소, 피서객이 많이 찾는 관광지 주변 음식점을 대상으로 위생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식중독 발생 우려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도는 배달앱 등록 음식점을 대상으로 조리실 청결 상태와 해충 차단시설 설치 여부, 배달함 위생관리, 이물 혼입 방지 조치 등을 중점 점검하고 있다. 보양식 전문점은 육류 취급 과정의 교차오염 방지 여부와 원재료 보관기준 준수,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으며, 해수욕장과 워터파크, 캠핑장 등 다중이용시설 주변 음식점은 지하수 수질검사 실시 여부와 종사자 건강진단 이행, 식용얼음 위생관리, 남은 음식물 재사용 금지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모든 점검 대상 업소에 대해 위생모와 마스크 착용 여부, 소비기한 경과 제품의 판매·사용·보관 여부, 조리장 위생관리, 냉장·냉동식품 보관온도 준수 등 기본적인 위생관리 기준 준수 여부도 함께 확인하고 있다.

도에 따르면 지난 27일 기준 총 575개 업소를 점검한 결과 36개 업소에서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미신고 영업 13개소,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18개소, 건강진단 미실시 1개소 등이며, 도는 적발 업소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관련자료사진 <사진=전북도>

특히 해수욕장 주변에서 영업 중인 무허가 식품접객업소 12개소를 단속했으며, 일부 대형 음식점에서는 조리시설과 주방의 위생관리가 미흡한 사례도 확인돼 현장 지도와 함께 개선조치를 실시했다.

김미정 전북자치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올여름은 폭염과 집중호우가 반복되는 등 고온다습한 날씨로 인해 식중독 발생 위험이 어느 때보다 높다"며, "특히 휴가지 다중이용시설과 가정에서 손쉽게 주문하는 배달음식에 대한 철저한 사전 위생관리를 통해 도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여름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은지 기자

<사진=안호영의원실>

안호영, 지역 현안사업 속도전 촉구

국토부 1차관·LH 본부장 면담
완주산단 공모 등 협조 요청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국토교통부 김이탁 1차관, LH 강오순 지역균형본부장과 면담을 갖고 완주·진안 등 지역 주요 현안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요구했다.

안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김 차관 등에게 "이재명 대통령이 일관되게 강조해온 '속도 있는 추진'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미 필요성과 방향이 확인된 사업인 만큼 실행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협력을 요청했다.

또 이날 면담에서는 완주 노후거점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공모사업과 완주 삼봉2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가 핵심 의제로 논의됐다.

안 의원은 노후거점 산단 경쟁력 강화 사업과 관련해 "완주는 기존 산업단지와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가 연계되는 지역으로, 산업·주거 복합 성장 기반이 충분하다"며 공모사업 선정 필요성을 설명하고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토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해당 공모사업은 8월 중 노후거점 산업단지 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삼봉2지구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 속도를 강하게 요청했다. 해당 사업은 7,006세대 규모로,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2030년 준공 예정)의 배후 주거지 조성을 위한 핵심 사업이다.

안 의원은 "산단 준공 시기에 맞춰 주택 공급이 이뤄지지 않으면 기업 유치와 정착이 어려워진다"며 "산업단지와 주거단지는 반드시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구 지정 이후 사업이 지연되면서 개발행위 제한에 따른 주민 불편과 민원이 지속되고 있다"며 "금년 내 지구계획 수립 등 사업이 본격화될 수 있도록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수소특화 국가산단과 국가식품클러스터 확장 등으로 당시보다 개발 여건이 크게 개선된 상황"이라며 "배후 거점도시로서 역할을 적기에 수행할 수 있도록 결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현장을 직접 확인하면 사업 필요성이 더욱 분명해질 것"이라며 LH 측에 현장 방문을 요청했다.

이에 LH 지역균형본부장은 조만간 현장을 방문해 사업 여건을 점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이탁 1차관은 이에 대해 국가산단과 연계한 주거 공급 필요성에 공감하며, 산업단지와 주거를 연계한 개발 방향과 지원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 의원은 "전북은 준비돼 있고 기회도 와 있다"며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지역 발전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김영묵기자

전북 정보보호지원센터 공식 출범

중소기업 맞춤 보안서비스 제공
민·관·학 협력거버넌스 구축

전북도가 인공지능과 데이터 중심 디지털 전환 시대를 맞아 도내 중소기업의 사이버 보안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한 디지털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 정보보호 지원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도는 전북테크노파크와 함께 28일 전북테크비즈센터에서 '전북정보보호지원센터 개소기념 세미나'를 열고 센터의 공식 출범을 알렸다.

최근 AI와 데이터 활용이 확대되면서 정보보호는 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떠오르고 있으나 많은 중소기업이 전문 보안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사이버 위협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역 차원의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전북정보보호지원센터는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현장 맞춤형 정보보호 컨설팅 ▲정보시스템 취약점 점검 ▲보안제품 도입 지원 ▲클라우드 기반 보안서비스(SECaaS) 지원 ▲정보보호 역량 강화 교육 등을 제공하며, 지역 기업의 정보보호 수준을 높이는 핵심 지원기관 역할을 수행한다.

이날 세미나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을 비롯해 공공기관, 대학, 지역기업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센터 운영 방향과 지역 정보보호 생태계 조성 방안을 공유했다.

이어 열린 제1회 전북정보보호협의회에서는 지역 맞춤형 협력사업 발굴과 공동 대응체계 구축, 정보보호 정책 제안 등을 논의했다. 협의회는 앞으로 민·관·학 협력을 기반으로 지역 정보보호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협력 플랫폼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도는 앞으로도 전북정보보호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지역 기업의 정보보호 역량을 높이고, 안전한 디지털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박선미 도 디지털산업과장은 "전북정보보호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도내 중소기업이 안전하게 디지털 혁신을 추진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 라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전주 팔복동·서노송동 도시재생 거점시설 '순항'

신복방앗간 10월
어울림 센터 내년 4월 준공

팔복동 빈집밀집구역 신복방앗간 조감도 <사진=전주시>

전주시 팔복동과 서노송동 일원 도시재생 거점시설이 들어선다.

전주시는 팔복동 빈집밀집구역 신복방앗간 조성공사와 인후반촌 도시재생 거점시설 조성사업 등 도시재생사업 건축공사가 순항하며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이 사업들은 시가 지난 2020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선정돼 이듬해인 2021년부터 추진한 도시재생 마중물사업이다.

시는 지난 2022년까지 부지 매입했으며 지난해까지 거점시설 운영을 위해 지역 주민 대상 역량 강화 교육과 운영 주체 선정 등을 완료했다.

특히 시는 도시재생사업 핵심인 '거점시설 건축공사'를 위해 지난해 12월까지 설계를 마쳤다. 2개 도시재생사업 거점시설 중 팔복동 신복방앗간은 오는 10월, 인후반촌 어울림 센터는 내년 4월 각각 준공될 예정이다.

향후 조성될 도시재생 거점시설에서는 각각의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마을사회협동조합'과 운영 부서(노인복지과, 건축과, 보건소 등)에서 각 공간별 운영주체가 돼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된다.

시는 거점시설 준공 후 지역 주민들이 해당 시설을 이용하며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혜민 기자

전주시 모두배움터 시즌2 수강생 모집

총 13개 강좌 운영

전주시는 '2026년 모두배움터 시즌2' 강좌를 개설하고 28일 오전 9시부터 수강생을 선착순 모집한다.

전주시 모두배움터는 시민들이 동네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배움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기획된 전세대 학습공간 지원사업이다. 이번 시즌2는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운영되며, 전주시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시즌2에서는 완산구 5개소, 덕진구 7개소 등 총 12개 기관에서 13개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완산구는 △차밍댄스(중화산2동) △힐링 다이어트 요가(효자4동) △흥과 신명의 뮤직난타(삼천1동) △온누리스크린파크골프(평화1동) △놀GO! 웃GO! 배우GO! 우리 전통놀이(풍남동) 등 생활체육과 전통문화 강좌가 마련된다.

덕진구는 △소도구를 이용한 근력 운동(덕진동) △흙빛소리 오카리나(송천1동) △우아한 우리춤 체조(우아1동) △한 손에 쏙! 칼림바 교실(진북동) △Sing(싱)글벙글 큰나루 노래교실(조촌동) △마음을 잇는 소리, 가야금(인후1동) 등이 운영된다.

특히 전주시 평생학습과(인후3동)에서는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 발맞춰 △AI를 활용한 영상 제작 교육 △AI를 활용한 라디오 방송 제작 교육 등 실생활에 유용한 첨단 미디어 활용 역량 강화 프로그램도 함께 제공한다.

수강 신청은 28일 오전 9시부터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각 운영기관에 전화 접수하거나 전주시 평생학습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접수할 수 있다.

/정혜민 기자

전주 북부권 과학로 확장

오는 2027년 말까지
백석저수지~전당사거리 구간
출·퇴근시간 등 교통 여건 개선

전주시가 북부권 교통환경 개선 위한 과학로 확장공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에코시티 등 대규모 개발에 따라 출퇴근 시간 및 공휴일 차량 정체가 극심한 전주 북부권 교통 여건을 개선하고, 완주·익산 등 인접 시·군간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해 과학로 2.1㎞ 구간의 기존 도로폭 20m를 35m(4차로→6차로)로 확장하는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먼저 시는 총사업비 77억을 투입해 백석저수지~전당사거리 구간(660m)에 대해 우선 공사를 진행하며 지난해 11월 실착공 후 토지 보상도 병행 추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시는 사업 구간 내 편입되는 한국농어촌공사 토지와 지목 및 이용현황이 유사한 백석저수지 내 전주시 토지를 교환함으로써 시설 관리의 효율을 높이고, 토지매입비 등 7억 7000여만원 예산을 절감했다.

또 시는 전미동 일대 농업용수 공급원인 백석저수지 구간에 대해서는 농번기 전 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백석저수지 횡단 수로암거 설치 및 사면 정비를 완료했으며, 오는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정상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향후 확장할 전당사거리~회포대교 구간(1440m)에 대해서는 지난해 개정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을 토대로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2026~2030)에 해당 노선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전북특별자치도 및 인접 시·군과 협력해나갈 계획이다.

이후 시는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되면 재정 부담을 해소하며 순차적으로 확장을 이어갈 계획이다.

시는 이 사업이 완료되면 출·퇴근시간대 교통정체 해소 및 인접 시·군간 접근성 향상으로 물류비용이 절감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시는 이번 도로 확장을 통해 기존에 없던 자전거도로와 인도를 신설해 세병공원~백석저수지~만경강~전주천으로 이어지는 체험형 걷기·자전거·생태관광 등 전주 북부권의 관광 기반을 확충할 계획이다.

김칠현 전주시 광역도시기반조성국장은 "과학로 확장을 통해 출·퇴근 시간대 교통 여건을 개선하고, 인접 시·군간 접근성을 높여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혜민 기자

전주시 도시재생 경관사진전 개최

"전주의 변화, 한 장의 기록"

전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제1회 전주시 도시재생 경관사진전-전주의 변화, 한 장의 기록'의 참가자를 공개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사진전은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변화한 공간과 그 속에서의 일상 모습을 사진으로 기록하고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진전에는 전주시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전주시 도시재생사업 구역 내에서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면 된다.

촬영 주제는 △도시재생을 통해 새롭게 변화한 거리·골목·시설 등을 담은 '공간의 변화' △사람과 공간이 어우러진 일상 풍경을 기록하는 '도시의 순간'의 두 가지 유형으로 운영된다.

참가자는 사진과 함께 촬영 장소와 간단한 기록을 제출하면 되며, 이렇게 수집된 자료는 도시재생의 가치를 시민과 함께 나누기 위해 향후 도시재생사업 홍보, 전시 및 아카이브 자료로 활용된다.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사진전 접수 마감 후 공정성을 높이고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시민 온라인 투표를 거쳐 최종 우수작 30팀을 선정할 예정이다. 사진은 전주시 도시재생사업 구역 내에서 촬영한 사진에 한해 접수 가능하며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네이버폼을 통해 진행된다.

/정혜민 기자

전주 '청춘★별채' 24호 입주 본격화

보증금 50만원 월임대료 1만원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

'청춘★별채' 24호 <사진=전주시>

전주지역 청년들을 위한 전주 청년만원주택 '청춘★별채'가 총 141호로 늘어났다.

전주시는 지난 27일부터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신축 매입한 평화동 청년만원주택 '청춘★별채'의 첫 입주가 시작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청춘★별채'는 완산구 평화동에 조성된 신축 청년임대주택으로, 총 24호 규모(1룸 3호, 2룸 21호)이다.

시는 지난 3월 입주자 모집공고를 거쳐 선정된 청년들과 입주계약 절차를 마치고 순차적으로 입주를 진행하고 있다.

평화동 신축 청춘★별채는 모든 세대에 냉장고와 세탁기, 에어컨, 전기쿡탑 등 1인 가구 생활가전을 갖춰 입주 즉시 생활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 청춘★별채는 무주택 미혼 청년에게 보증금 50만원, 월 임대료 1만원(방수 기준)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전주시 대표 청년 주거지원 사업이다.

시는 현재 이번 평화동 신축 주택을 포함해 11개 주택 141호를 운영하고 있다.

시는 기존매입 주택의 퇴거세대에 대한 리모델링 보수공사를 완료하고, 22호를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하반기 신규 입주자 모집은 1인 단독거주형과 2인 공동거주형(쉐어하우스)으로 공급된다.

입주자 모집 공고문은 오는 8월 말 전주시 누리집(www.jeonju.go.kr)에 게시될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입주신청은 공고문에 기재된 별도 신청기간에 맞춰 온라인(전주시청 누리집 '통합신청지원')으로 신청하면 된다.

/정혜민 기자

전북경찰청 시민감찰위원회 정기회의

전북경찰청은 28일 전북청 회의실에서 시민의 시각을 감찰 행정에 적극 반영하고 경찰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2026년 시민감찰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신임위원에 대한 위촉장 수여와 감찰 행정의 주요 추진 사항을 공유하고, 제도 개선 방안과 발전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재영 전북경찰청장은 "현재 경찰은 사법구조 개혁 이후 확대된 권한에 걸맞은 높은 책임성과 투명성이 요구되고 있으며,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무엇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감찰 행정이 뒷받침되야 한다"며 "경찰 내부 노력만으로 한계가 있는 만큼 시민감찰위원회의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시각과 고견을 적극 반영해, 도민 눈높이에 맞는 책임행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김동근 시민감찰위원장은 "시민감찰위원회는 경찰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중요한 소통 창구"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충실히 전달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의견 제시를 통해 신뢰받는 경찰 행정 구현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전북경찰청은 앞으로도 시민감찰위원회를 실질적인 외부 통제 및 소통기구로 활성화하여 시민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김은지 기자

전주 완산구 관광매력도 전국 4위·관광 경쟁력 '입증'

외국인 방문객 수 62.8%↑
외국인 관광 소비 지출액 83.3%↑

전주시와 전주관광재단(대표이사 용선중, 이하 재단)은 재단 정식 출범 1년여 만에 관광 공간 운영과 콘텐츠 개발, 국내외 마케팅, MICE 기반 조성, 지역 관광 주체와의 협업을 본격화하며 전주 관광 산업 외연을 넓혔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실제로 한국관광공사 데이터랩의 이동통신 기반 자료 기준으로, 올해 상반기 외국인 방문지표는 약 49.4만명으로 전년 동기(약 30.4만 명) 대비 62.8% 증가했다. 또 같은 조회 조건의 한국관광공사 데이터랩 신용카드 기반 월별 관광소비액을 합산한 결과, 올해 상반기 전주시 외국인 관광소비액은 약 109억 1000만원으로 전년 동기(약 59억 5천만원)보다 83.3%나 증가했다.

또 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실시한 '2025 지역관광발전지수'에서 종합 102.23점으로 기초지자체 평균 86.07점을 상회하며, 평가 도입 이후 처음으로 종합 1등급을 달성하는 등 전주 관광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다.

민간 빅데이터 평가에서도 '2026 야놀자 도시경쟁력지수(YCCI)'에서 전주시 완산구가 매력도 8.96점으로 전국 255개 행정구역 가운데 4위, 호남권 1위를 기록했으며, 종합 순위에서도 전국 11위로 '1st Tier City'에 포함됐다.

'2025 한국 관광지 500'에서는 전주한옥마을이 최종 분석 대상 1만6745곳 중 종합 8위에 선정됐다.

이와 함께 재단은 서울을 비롯해 홍콩·선전, 오사카·도쿄, 마닐라, 쿠알라룸푸르 등에서 열린 B2B 관광박람회에 총 5회 참가하는 등 글로벌 관광 유통망 확대에도 집중했다.

재단은 지난 상반기 중국의 대표 SNS인 샤오홍슈와 도우인 채널 운영을 시작해 인스타그램·유튜브 등 글로벌 플랫폼 이용이 제한적인 중국 본토 시장을 공략하는 등 관광시장 개척을 위한 글로벌 디지털 홍보도 강화했다.

지난달 10일에는 '2026 전주 트래블 클럽 글로벌 서포터즈' 발대식을 개최하며 다국어 참여형 홍보를 본격화했다.

여기에 재단은 MICE 분야에서는 전주컨벤션센터 개관에 대비해 유치·홍보 역량과 관련 산업 네트워크를 단계적으로 강화했다.

국제회의기획업체(PCO) 인터컴㈜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한국MICE협회에 가입했으며, 한국PCO협회 초청 팸투어를 운영했다. 국·영문 MICE 홍보책자와 전자책도 발간해 전주의 회의·관광 자원과 개최 여건을 국내외 업계에 체계적으로 제안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재단은 올 하반기에는 △파리 IFTM Top Resa 박람회 △서울 KOREA MICE EXPO 2026 등에 참가해 글로벌 관광·MICE 시장에서 전주 홍보와 비즈니스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테마별 여행코스 개발 및 상품화 △중저가 숙박시설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J-STAY 숙박 인증 △'성지 혜윰길' 투어 △전북 시·군 연계 관광코스 개발 △미식여행콘텐츠 개발 △전주형 워케이션 시범 프로그램 등을 추진해 관광객의 방문이 숙박과 지역 소비, 재방문으로 이어지는 체류형 관광 기반을 확대할 방침이다.

/정혜민 기자

예수병원 김경아 과장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영예

전주 예수병원(병원장 신충식)은 산부인과 김경아 과장이 '제15회 인구의 날' 임산부와 영유아 건강 증진 및 저출산 극복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28일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인구의 날' 유공자 포상은 저출산 및 고령화 등 인구 위기 극복에 동참하고, 임신·출산·양육 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에 헌신한 개인 및 기관을 발굴해 격려하는 뜻깊은 상이다.

김경아 과장은 고위험 산모 집중 관리와 안전한 분만 환경 조성에 앞장서며, 필수의료가 위협받는 심각한 저출산 시대 속에서도 묵묵히 지역사회 산모와 태아의 생명을 지켜온 헌신적인 노력을 높게 평가받아 이번 장관 표창의 영예를 안았다.

/김은지 기자

JBT 전북타임스 Jeon Buk Times
2026년 7월 29일 수요일

전북도 '도시재생 우수사례' 발굴·확산

지역민 실생활에 따른 삶·문화변화 등 지속가능 실현정책 '앞장'

28일 전북도와 전주시는 도시재생사업 결과물인 특성화도서관 도시재생 거점시설 지속가능한 운영모델을 제시했다. <사진=전북도시재생지원센터>

전북도 도시재생지원센터(전북개발공사)가 도시재생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며 지역민 실생활에 따른 삶과 문화변화에까지 지속가능 실현정책에 앞장서고 있다.

28일 전북도와 전주시는 도시재생사업 결과물인 특성화도서관(용머리 옛이야기 도서관) 도시재생 거점시설 지속가능한 운영모델을 제시했다.

용머리 옛이야기 도서관은 2018년 국토교통부 우리동네살리기 사업에 선정된 '용머리 남쪽 빛나는 여의주마을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조성된 핵심 거점시설이다.

사업 종료 후 전주시 도서관산업과로 이관되어 행정직영 체제로 운영되오며 도시재생으로 조성된 거점시설이 공공도서관 정책과 연계되어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대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전주시는 현재 시립도서관 13개소와 작은도서관 134개소 운영 중 13개소를 특성화도서관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용머리 옛이야기 도서관은 특성화도서관 중 하나로 '이야기를 들려주는 도서관' 주제로 운영되고 있다.

도서관 가장 큰 특징은 주민 운영 주체라는 점이다.

주민을 대상으로 '이야기보따리단' 양성과정을 운영해 4명이 이야기보따리단으로 활동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어린이를 대상으로 옛이야기 프로그램을 총30회 운영하며, 책을 읽는 공간을 넘어 이야기를 듣고 체험하는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도시재생 거점시설 운영 활성화 사례로 도시재생 거점시설이 주민 중심 지속가능한 운영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성과이다.

무엇보다 용머리 옛이야기 도서관을 통해 주민들은 이야기를 나누고 지역문화를 공유하는 공동체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프로그램 운영과 공간 활용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보이고 있다.

공간 자체도 하나의 문화콘텐츠다.

대한민국 대표 건축가 유현준 교수는 도서관을 '이야기를 만나기 위한 여정'이라는 개념으로 설계되며 공간을 경험하는 과정 자체가 하나의 이야기가 되도록 했다.

전북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전북개발공사)는 이러한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확산해 도시재생이 단순한 시설 조성에 그치지 않고 주민의 삶과 지역의 문화를 변화시키는 지속가능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전북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전북개발공사) 관계자는 "용머리 옛이야기 도서관은 버려진 공간을 문화와 사람, 그리고 이야기로 다시 채운 도시재생 상징적인 사례"라며 "앞으로도 지역 고유의 역사와 이야기를 담은 거점시설이 주민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사진=북전주농협>

북전주농협 '햇빛소득마을 사업설명회' 개최

영농 발전 병행 미래농업 소득 모델 모색

북전주농협(조합장 이우광)은 지난 24일 임원 및 대의원들을 대상으로 햇빛소득마을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를 통해 북전주농협은 영농과 발전을 병행하는 새로운 농업 모델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설명회는 영농형 태양광 마을협동조합 사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제도와 사업 추진 방향, 설치 사례 및 기대효과 등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많은 임직원 및 관계자 인원 등이 참석하며 높은 관심속에 호응을 받았다.

강의는 마리다사회적협동조합 박진상 이사장이 맡아 영농형태양광의 개념과 운영 방식, 관련 정책 및 지원제도, 도입 시 고려사항 등을 중심으로 알기 쉽게 설명했다.

이후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대의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도 함께 진행됐다.

영농형태양광은 농지 위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되 농업 생산을 지속하면서 발전 수익을 함께 창출하는 방식으로,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 마련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북전주농협 이우광 조합장은 "영농형태양광은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면서 농가 소득을 다각화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인 만큼, 조합원들이 올바른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이번 설명회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조합원들의 소득 증대와 미래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과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소민 기자

농진청-한국배연구회 '배 고온 장해 대응 공동연수'

저장·유통품질관리 핵심 정보공유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한국배연구회와 오늘 '배 고온 장해 대응 공동연수'를 연다.

이 자리에는 전국의 배 재배 농업인과 농촌진흥기관 관계자, 연구자 등 300여명이 참석해 고온으로 인한 열매데임, 터짐, 병해충 피해 최소화 방안과 수확 후 저장·유통 기술 등에 관한 의견을 나눈다.

이날 연수는 충남 천안 남서울대학교에서 마련됐으며 배나무에 물을 잘게 뿌려 과수원 온도를 낮추는 미세 살수, 햇빛을 가리는 차광망, 열매 표면의 온도 상승을 줄이는 탄산칼슘 처리 방법 등을 소개한다.

또 과실 성숙 상태를 살펴 수확 시기를 앞당기거나 여러 차례로 나눠 수확하는 방법, 기후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병해충 발생 시기와 방제 방법, 저장 중 품질 관리, 수출시장 다변화 방안까지 다양한 주제 발표가 이어진다.

발표 자료는 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에서 검색 후 PDF 파일 형태로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다.

올여름은 평년보다 기온이 높고 강수량도 많을 것으로 예상돼, 9월 수확기를 앞둔 배 과수원에서 생리장해와 품질 저하가 우려된다.

따라서 농가에서는 미세살수 장치 가동, 차광망 설치, 탄산칼슘 살포, 수확기 예측에 따른 조기·분산 수확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배연구센터 전지혜 센터장은 "이상기상으로 인해 배 재배 여건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는 만큼, 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대응 기술 보급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농촌진흥청은 한국배연구회와 오늘 '배 고온 장해 대응 공동연수'를 연다. 이 자리에서 저장 및 유통 기술 등에 관한 의견을 나눈다. <사진=농진청>

이어 "이번 행사가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우리 배 산업이 기후 위기를 극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전북지역8개 기업, 조달청 신규혁신제품 지정

공공시장 도약 발판 마련 후속지원 범위 확대

전북지방조달청(청장 김항수)은 기술혁신을 통해 공공문제 해결에 기여할 도내 기업 8개사 제품이 조달청 신규 혁신제품으로 지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제품은 △주식회사 금강환경의 '기존 공법의 한계를 극복해 반영구적 사용이 가능한 특허구조 미생물처리 오수처리시설' △(주)지서산업의 '듀얼루프 방식의 유압라인 이중화형 가동보' △제이앤지의 '활성탄소섬유 전열교환소자를 이용한 유해가스 저감 환기시스템' △(유)삼신기업의 '유지보수 편리성과 소음 저감효율을 극대화한 다면형 고효율 투명 방음판' △(주)에스엠전자의 '고장진단 및 내진안전 통합 모니터링형 태양광발전장치' △㈜하나엔텍의 '스컴 및 침전물 제거장치 장착형 약액세정식 탈취기' △(주)픽슨이앤씨의 '내부 평활형 고 내식성 리브강관' △㈜에스에스티의 '디밍제어기능이 적용된 LED 전광판'이다.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최대 6년간 수의계약을 포함해 시범구매, 우선구매, 구매면책 등의 다양한 혜택이 제공되며, 최근에는 R&D 연계, 해외실증, ODA 등 후속지원 범위도 대폭 확대되고 있다.

김항수 전북지방조달청장은 "혁신제품은 사회문제 해결 위한 전략적 조달수단이자 기업 성장의 디딤돌"이라며 "앞으로도 혁신기술과 공공수요가 만나는 지점에서 지역기업의 도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전북농기원 '치유농업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 자존감 향상 정서 회복 지원

청소년 대상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해 전북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원장 최준열)은 28일 전주청소년꿈키움센터에서 학생과 직원 15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자존감 향상을 위한 치유농업 프로그램 '마음이 자라는 테라리움'을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을 청소년 교육 현장에 시범 적용하고, 법무부 소속 대안교육센터 전주청소년꿈키움센터와의 협력을 통해 치유농업 서비스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프로그램은 송은혜 치유농업사가 진행했으며, 치유농업의 의미와 자연이 주는 긍정적인 효과를 소개한 후 이끼를 활용한 테라리움 만들기 활동을 실시했다.

참가자들은 흙과 이끼를 직접 배치하며 자연에 집중하고, 유리병 속 자신만의 작은 숲을 완성하면서 심리적 안정감과 성취감을 경험했다.

이어 완성된 작품에 이름을 붙이고 작품에 담긴 희망과 꿈을 서로 나누며 긍정적인 마음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 서로를 응원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됐다.

전북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자원경영과 최윤희 과장은 "치유농업은 자연을 통해 정서적 안정과 자존감을 높이는 효과적인 활동"이라고 말했다.

<사진=농기원>

이어 "앞으로도 청소년을 비롯한 다양한 계층이 치유농업의 가치를 체감할 수 있도록 맞춤형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치유농업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외부 투자자들에 대한 첫 주식공매>

전북TP 'IPO 지원' ㈜나노솔루션 코넥스 상장

성장사다리 성공모델 자리매김

전북테크노파크(원장 이규택)는 '전북특별자치도 선도기업 육성사업' 통한 도내 첨단 나노소재 전문기업이 28일 코넥스(KONEX) 시장에 공식 상장한다고 밝혔다.

전북TP는 나노솔루션 성공적인 자본시장 진입을 위해 전문기관을 통한 상장 조건 기준의 내부 진단과 회계·세무·업무분장 등 맞춤형 IPO 컨설팅을 제공하고, 기술특례상장을 위한 객관적인 기술성 평가 및 전략 수립을 입체적으로 지원해 왔다.

이번 상장 결실은 도내 첨단 나노소재 전문기업 (주)나노솔루션(대표 김형열)이다.

(주)나노솔루션은 독자적인 나노소재 합성기술을 바탕으로 단일벽 탄소나노튜브(SWCNT) 소재의 전도성 분산액 개발 및 안정적인 양산 기술을 확보한 도내 대표적인 첨단소재 기업이다.

특히 전북TP의 다각적인 지원과 성장로드맵을 바탕으로 대대적인 투자를 단행, 익산 제3산업단지 2만 4,394㎡ 부지에 총 177억원을 투자해 디스플레이와 이차전지 전극 소재인 탄소나노튜브 및 분산액 생산기지(익산공장)를 성공적으로 준공하며 양산 체제를 대폭 강화했다.

(주)나노솔루션의 고용 인원은 2024년 32명에서 2025년 59명으로 무려 84.4%(27명 증가) 대폭 증가하며, 기술 혁신과 더불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대표적인 성장사다리 성공모델로 자리매김했다.

나노솔루션은 이번 코넥스 상장을 계기로 기업공개(IPO)를 통한 안정적인 투자가 유치와 개발 자금을 확보하게 됨으로써, 신규 익산공장 중심의 설비 투자를 더욱 가속화하고 미래 첨단 탄소소재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성장 동력을 완성하게 됐다.

김형열 (주)나노솔루션 대표는 "전북테크노파크의 IPO 활성화 지원사업을 통한 전문적인 기술성 평가와 체계적인 컨설팅 덕분에 익산공장 준공, 고용 창출, 그리고 코넥스 상장이라는 연이은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며 "공모 및 자금 조달을 통해 시설 투자를 가속화하고 우수 인재를 지속 확보하여 전북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첨단 나노소재 기업으로 성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종한 전북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장은 "앞으로도 성장 잠재력이 높은 선도기업들이 IPO를 통해 자금 조달과 대외 신뢰도를 확보하고, 지역 경제를 견인하는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정소민 기자

전북은행-현대자동차 '공동마케팅' 업무협약 체결

고객 맞춤형 혜택 제공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박춘원)와 현다자동차가 공동마케팅 업무협약을 28일 체결했다.

28일 전북은행 본점에서 현대자동차와 공동마케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금융서비스와 차량구매를 연계한 고객 혜택 확대 및 상호협력을 위한 공동마케팅 추진 위해 마련됐다.

협약식은 전북은행 본점에서 전북은행과 현대자동차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 체결과 함께 향후 협력방안에 대한 의견 등을 공유했다.

양 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현대자동차 구매고객 대상 금융상품 및 우대서비스 제공 △전북은행 고객 대상 차량 구매 혜택 제공 △공동 프로모션 및 마케팅 추진 등 다양한 협력사업 등을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금융과 모빌리티를 연계한 새로운 고객가치를 창출하는 의미 있는 협력의 시작"이라며 "앞으로도 현대자동차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고객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지역 대표 은행으로서 차별화된 금융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소민 기자

전북교육청, 간부회의 생중계… 행정 투명성 높인다

전 도민 대상 전체 공개로 전환… 9월부터 기관장회의도 생중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주간 정책회의를 도민들에게 실시간으로 공개하며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에 나섰다.

전북교육청은 교육정책 결정 과정을 도민에게 투명하게 알리기 위해 주간 정책회의 생중계를 28일부터 전면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내부 직원들을 대상으로만 공개했던 주간 정책회의를 도민 전체에 실시간으로 공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청을 원하는 도민은 전북교육청 누리집 내 '열린교육감실-열린회의생중계' 코너를 통해 접속할 수 있으며, 지나간 회의 영상도 다시 볼 수 있다.

이날 열린 첫 공개 회의에서는 청렴도 향상 방안을 비롯해 교육혁신선도지역 공모 대응, 지자체 및 도의회와의 협력 방안 등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천호성 교육감은 회의에서 "학교가 섬으로만 있어서는 안 되며 지역과 연대하고 상생해야 한다"며 지자체, 대학, 교육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전북교육청은 주간 정책회의에 이어 오는 9월 21일부터는 '월간 기관장회의'까지 생중계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월간 기관장회의에는 교육감과 본청 실·국·과장을 비롯해 도내 14개 시·군 교육장과 13개 직속기관장이 참여해 지역별 주요 현안을 공유하게 된다.

한편, 이번 전북교육청의 회의 전면 공개 조치는 최근 본청 슬림화와 조직 개편 연구용역 착수 등 행정 효율화 및 조직 정비 움직임과 맞물려 주목받고 있다.

행정 조직 전반의 대수술을 예고한 전북교육청이 의사결정 과정을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공개하고 나선 만큼, 향후 조직 개편과 정책 추진 과정에서 도민과 교육 현장의 소통을 얼마나 이끌어 낼지 관심이 모인다. /최성민 기자

'군산짬뽕페스티벌' 참여업체 모집

내달 6일까지·중식부스 대상

군산시는 오는 10월 9일 부터 11일까지 3일간 장미동 백년광장 일원에서 개최하는 '2026년 군산짬뽕페스티벌'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중식부스 참여업체를 내달 6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군산짬뽕페스티벌은 군산을 대표하는 음식인 짬뽕을 중심으로 지역 중식문화를 널리 알리고, 세계적인 K-푸드 열풍 속에서 군산 고유의 독창적인 미식과 관광을 연계한 차별화된 관광 콘텐츠를 선보이는 군산 대표 미식축제이다.

올해 축제는 시간여행축제와 분리해 독립적으로 개최되며, 짬뽕과 중식문화에 더욱 집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군산만의 미식관광 경쟁력을 강화하고 대표 음식 축제로서의 가치를 더욱 높여갈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 방문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0.5인분 메뉴 판매'를 올해도 이어간다. 이를 통해 관광객들은 부담 없는 가격으로 여러 업체의 대표 메뉴를 맛보며 다채로운 미식 경험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모집 규모는 중식부스 12개 이내이며, 신청 대상은 공고일 현재 군산시에서 일반음식점(중식)으로 영업신고를 하고 정상 영업 중인 업소이다.

시 관계자는 "군산을 대표하는 미식축제를 함께 만들어갈 지역 중식 업체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물·빛·음악으로 물드는 '정읍 물빛축제' 31일 개막

내달 2일까지 도심형 여름축제 개최

한여름 무더위를 날려줄 '2026 정읍 물빛축제'가 오는 31일부터 내달 2일까지 사흘간 정읍천 미로분수와 벽천분수 일원에서 화려하게 펼쳐진다.

'올여름, 정(井)했어!'를 구호로 내건 이번 축제는 물과 빛, 음악을 결합한 도심형 여름축제로 꾸며진다.

축제 첫날인 31일에는 개막식에 이어 록밴드 국카스텐과 케이팝(K-POP) 그룹 하이키가 무대에 오른다.

내달 1일에는 육중완밴드, 마지막 날인 2일에는 하하·스컬이 공연을 펼친다.

축제 기간에는 전자음악(EDM) 파티와 줌바, 청소년 춤 공연 등도 이어진다. 행사장에는 다양한 먹거리 판매 공간과 이동식 음식 판매차량(푸드트럭)이 운영된다.

시는 시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축제장 주변 일부 구간을 축제 기간 동안 '차 없는 거리'로 운영한다. 차량 통행을 제한해 보행 중심의 축제 환경을 조성하고 가족 단위 방문객과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행사를 즐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경찰·소방 등 관계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교통경찰과 모범운전자회 회원, 자율방범대원을 주요 교차로에 배치한다.

우회도로와 인근 주차장도 안내해 차량 통제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도 대비한다. 축제장에 무더위쉼터를 운영하고 얼음 생수를 비치하며, 응급의료반과 구급차를 상시 배치한다.

물놀이 시설에는 안전관리요원을 집중적으로 배치해 사고 예방에 나선다.

이학수 시장은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안심하고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안전관리를 최우선으로 두고 준비했다"고 말했다.

이어 "차 없는 거리 운영에 따른 불편에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 물빛축제가 정읍의 새로운 여름 관광 상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전북교육청-전북대, AI 교육 협력 업무협약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과 전북대학교가 도내 초·중·고 학생의 인공지능(AI) 교육 활성화와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 손을 잡았다.

천호성 교육감과 양오봉 전북대 총장은 '전북 초·중·고 AI 교육 활성화 및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 업무협약'을 도교육청 5층 회의실에서 지난 27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보유한 교육 역량과 인프라를 활용해 학생들의 AI 교육 기회를 넓히고, 교원 역량 강화와 고교-대학 연계 교육체계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맞춤형 인재 양성 협력 체계 구축 △초·중·고 학생 AI 교육 활성화 △고교-대학 연계 교육과정 운영 △교원 AI 교육 역량 강화 △AI 교육 인프라 활용 및 확산 등 7개 분야에서 협력한다.

전북교육청은 현장 AI 교육 수요 발굴과 교원 지원을 맡고, 전북대는 대학의 전문성과 실습 인프라를 교육 현장과 연계해 체계적인 교육을 지원할 방침이다.

천호성 전북교육감은 "학생들이 AI 시대를 잘 대비할 수 있도록 대학의 전문성으로 힘을 보태달라"고 말했다.

양오봉 전북대 총장은 "대학의 역량을 결합해 학생들이 미래사회의 핵심 역량을 갖춘 인재로 성장하도록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익산시 '가족 맞춤 시티투어' 운영

백제 역사부터 이색 체험까지

익산시가 여름방학을 맞아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특별한 관광상품을 마련했다.

시는 역사, 문화, 체험을 아우르는 가족 맞춤형 시티투어 '백제에 반하다-여름방학엔 익산 백반여행이지'를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백반여행'은 '백제에 반하다'와 일상 속 한 끼 식사인 '백반'처럼 부담 없이 즐기는 여행이라는 의미를 담아 기획된 프로그램이다.

이번 시티투어는 내달 8·9·22·23일 등 총 4회 운영되며, 익산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하루 동안 알차게 즐길 수 있도록 구성해 관광객에게 색다른 여행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참가자들은 다이노키즈월드에서 다양한 실내 체험을 즐기고, 국립익산박물관에서 백제 역사와 문화를 배우게 된다.

이어 이상한교도소에서 이색 체험을 하고, 황등석산전망대에서는 탁 트인 경관을 감상하며 익산의 또 다른 매력을 만날 수 있다.

참가 신청은 익산시 누리집 통합예약시스템에서 내달 17일까지 가능하며, 회차별 20명 이상 신청 시 운영된다.

참가비는 1인당 2만 5,000원으로 중식과 체험비, 투어비가 모두 포함된다.

이윤리 문화관광산업과장은 "이번 여름방학 시티투어는 아이들에게는 즐거운 체험과 역사교육의 기회를, 부모들에게는 가족과 함께하는 특별한 추억을 선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많은 관광객이 익산에서 알찬 여름방학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익산시는 겨울방학과 봄방학에 이어 여름방학에도 계절 맞춤형 시티투어를 운영하는 등 익산의 다양한 매력을 쉽고 편리하게 즐길 수 있는 관광 콘텐츠를 확대하고 있다.

/익산=최준호 기자

국립전주박물관 '자개 키링 만들기' 행사

국립전주박물관은 8월 '문화가 있는 날' 자개공예 문화체험 행사를 준비해 운영한다.

이에 박경도 국립전주박물관장은 내달 8일 체험행사 '달항아리 자개 키링 만들기' 행사가 국립전주박물관 세미나실에서 총 3회 개최된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행사는 회차당 20명씩 총 60명 선착순 운영되며 체험은 무료료 운영된다.

신청은 오는 31일, 내달 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어진다.

자세한 내용은 국립전주박물관 누리집을 확인하면 된다.

특히 이번 행사는 국립전주박물관에서 전시되고 있는 백자 항아리(달항아리) 유물과 연계해 진행된다.

행사 참여자들은 넉넉하고 둥근 모양으로 풍요와 복, 화합과 조화를 상징하는 달항아리와 조개껍데기를 얇게 갈아 아름다운 광채를 만드는 자개 공예에 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

<사진=국립전주박물관>

이 과정에서 풍요와 제물을 상징하는 물고기, 행운과 희망을 상징하는 구름, 장수와 평화를 상징하는 학 등 자개로 꾸밀 수 있는 전통 문양에 대해 배우는데, 이 중 자신이 원하는 문양을 직접 골라 공예 작업을 진행한다.

/정소민 기자

전북문화관광재단 '예술인 역량강화 재교육' 지원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은 '2026 예술인 역량강화 재교육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도내 예술인들이 AI 기술을 실제 예술 창작에 쉽게 접목하고 새로운 창작 영역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다.

특히 이번 사업은 도내 예술인의 참여 장벽을 낮추고자 '고창문화관광재단'과 '진안전통문화전수관'의 협력을 통해 고창군과 진안군을 거점으로 교육을 추진한다. 이번 거점 교육을 통해 고창·진안 및 인근 5개 지역(무주, 완주, 장수, 순창, 정읍) 예술인들의 교육 참여가 보다 수월해질 전망이다.

△고창 권역은'고창군 여성회관'에서 내달 7일과 14일에 각각 오후 2시부터 6시 △진안 권역은 '진안전통문화전수관'에서 내달 11일·13일·18일·20일에 각각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운영된다.

교육 내용은 텍스트 AI(챗GPT 등)를 활용한 작가노트 및 작품 설명문 작성부터 디자인 AI(Canva 등)를 활용한 홍보 포스터 및 카드뉴스 제작까지, 창작과 홍보 전반에 걸친 실무 과정으로 구성됐다. 교육 신청 접수는 지난 27일부터 이메일을 통해 선착순 접수로 진행되며, 각각 20명씩 모집한다.

신청서 서식 등 공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재단 홈페이지와 창작지원팀_예술인복지증진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장정철 기자

JBT 전북타임스 Jeon Buk Times
2026년 7월 29일 수요일

익산소방서, 여름철 혈액 수급 지원 '헌혈 캠페인' 추진

익산소방서(서장 소철환)는 28일 소방서 차고지에서 여름철 안정적인 혈액 수급을 지원하기 위해 '하절기 생명나눔 헌혈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여름 휴가철과 학교 방학 등으로 혈액 보유량이 감소하는 하절기를 맞아 불안정한 혈액 수급난을 해소하고, 헌혈을 통한 생명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현장에는 바쁜 현장 활동과 교대 근무로 인해 참여가 쉽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은 혈액 수급에 보탬이 되고자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또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힘쓰는 의용소방대원들도 바쁜 생업에도 불구하고 혈액 수급 안정화에 동참하고자 두 팔을 걷었다.

소철환 소방서장은 "작은 실천으로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헌혈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준 직원과 의용소방대원들에게 감사하다"라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도내 혈액 수급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다양한 사회적 공헌 활동에 앞장서겠다"라고 전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시, 공공실버주택 시설 정기 점검 및 불편 개선

정읍시가 어르신 88세대가 거주하는 공공실버주택의 시설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생활 불편을 개선한다.

공공실버주택은 2021년 4월 준공된 지하 1층, 지상 11층 규모의 영구임대주택이다. 총 88세대가 모두 입주를 마치고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건물 1층에는 노인복지관과 급식소가 들어서 있어 입주민들은 거주지 안에서 다양한 복지서비스와 식사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시는 입주민의 생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시설물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보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생활 속 불편 사항도 신속히 파악해 개선하는 등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

입주민의 의견을 시설 운영에 적극 반영하고 관리체계도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뒷받침하는 주거복지시설로 기능할 수 있도록 시설관리와 운영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건축과 관계자는 "공공실버주택은 어르신들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중요한 주거공간인 만큼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관리하고 있다"며 "체계적인 시설 유지관리와 지속적인 환경 개선을 통해 더욱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주거공간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익산 이리동로타리클럽 나눔 전하며 새 임기 시작

익산 봉사단체인 이리동로타리클럽이 축하 화환 대신 백미를 기탁하며 나눔문화 확산에 힘을 보탰다.

익산시는 28일 이리동로타리클럽(회장 장세호)이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150만 원 상당의 백미를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달된 백미는 이리동로타리클럽 회원들이 신임 회장 취임을 기념해 축하 화환 대신 지역사회 나눔을 실천하자는 취지로 십시일반 뜻을 모아 마련했다. 백미는 다이로움 나눔곳간을 통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전달될 예정이다.

장세호 회장은 "단순한 취임 행사에 그치기보다 회원들의 따뜻한 마음을 지역사회와 나누며 임기를 시작하고 싶었다"며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의 곁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봉사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익산시, 스마트 교통 혁신 본격화

자율주행 '마룡e버스' 시범 운행 시작 시민 대상 무상 이용

<사진=익산시>

익산시가 미래형 첨단 대중교통 체계를 도입하며 전북특별자치도 스마트 교통 혁신의 중심지로 전격 도약한다.

익산시는 28일 도심 주요 거점을 스스로 달리는 친환경 전기 저상 자율주행버스인 '마룡e버스' 시범 운행을 시작했다. 시범 기간 동안 시민들은 버스를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시범 운행은 민선 9기 익산시의 핵심 방침인 '미래첨단도시로의 대전환'을 상징하는 성과다. 이날 열린 마룡e버스 개통식에는 최정호 익산시장을 비롯해 김충영 익산시의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강정희 전북도의원, 전북도 교통정책 관계자, 자동차융합기술원장 등이 대거 참석했다. 이들은 터미널에서 출발해 익산역과 원광대학교를 거쳐 다시 터미널로 복귀하는 핵심 '1노선' 구간을 직접 시승하며 자율주행 기술의 안전성과 차량 성능을 점검했다.

마룡e버스는 최첨단 레이더 센서와 지능형 주행 시스템을 탑재해 승객 안전을 최우선으로 설계됐다. 시는 차량의 안전성을 완벽히 확보하기 위해 현재 추진 중인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C-ITS) 인프라 구축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를 통해 도로 위 신호등의 잔여 시간과 전방 돌발 상황 등 실시간 교통 정보를 자율주행 차량과 끊임없이 주고받는 고도화된 안전망을 가동한다.

시는 이번 1노선 개통을 시작으로 미래 교통 영토 확장에 박차를 가한다. 2028년까지 배산체육공원과 익산역, 전북대 익산캠퍼스 등 유동 인구가 밀집한 대학가와 문화 체육 거점을 연결하는 추가 노선 확장을 단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관련 스마트 인프라를 전방위로 넓혀 자율주행 기술 중심의 미래형 대중교통 생태계를 완성한다는 구상이다.

최정호 익산시장은 "이번 마룡e버스의 본격적인 운행은 우리 익산시가 지방소도시의 한계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미래 첨단 교통도시로 나아가는 매우 뜻깊은 신호탄"이라며 "시민들이 일상에서 혁신 기술을 체감할 수 있도록 철저한 운행 관리와 상시 안전 점검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역 앞 유휴부지, 광장·정원으로"

지역수요맞춤지원 사업 선정… 국비 21억원 확보

정읍시가 국토교통부의 '2026년 지역수요맞춤지원 사업'에 선정돼 정읍역 앞 광장·정원 조성을 위한 국비 21억원을 확보했다.

시는 '반올림, 정읍정(井)원 조성사업'이 서면평가와 현장평가 등을 거쳐 전국 최종 선정지 15곳 가운데 하나로 이름을 올렸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지역수요맞춤지원 사업은 성장촉진지역을 대상으로 주민 생활과 밀접한 편의·문화·복지시설 조성을 지원하는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이다.

시는 국비 21억원과 지방비 10억원을 합한 총사업비 31억원을 투입해 정읍역 앞의 단절되고 노후한 유휴부지 2096㎡를 개방형 광장과 정원으로 조성한다.

사업을 통해 방치된 공간을 정비하고 정읍의 정체성을 담은 우물광장과 도심 속 소규모 쉼터(포켓쉼터)를 마련한다. 정읍역 일대는 주민들이 휴식하고 소통할 수 있는 도심 상징공간으로 전면 개편될 예정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정읍역 주변의 단절된 생활권이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방문객의 체류 시간이 늘어 역세권과 인근 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올해 지역개발사업 구역 지정과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 절차를 진행한 뒤 2027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학수 시장은 "이번 공모 선정은 정읍역 앞 유휴공간을 주민 생활에 꼭 필요한 시설로 재생하기 위해 부서 직원들이 힘을 모은 결실"이라며 "지역 주민들의 개선 요구를 적극 반영해 '정읍정원'을 새로운 지역 명소이자 주민 소통의 거점으로 성공적으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염색체 수가 3배인 개체>

군산시 '3배체 굴' 시범양식 순항

첫 현장 모니터링서 안정적 생육 확인

군산시가 기후변화 대응과 양식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추진 중인 신품종(패류) 양식 연구개발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산시는 지난 7월 초 옥도면 장자도 해역에 입식한 3배체 굴 치패 3만 마리를 대상으로 27일 첫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점검은 군산시가 사업 위탁 수행기관인 한국수산자원공단 서해본부와 협력해 추진 중인 신품종 양식 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됐으며, 현장에는 모니터링 수행기관인 ㈜한국생태연구원과 잠수 전문업체가 참여해 양식시설과 굴의 성장 상태를 확인했다.

이번 조사는 입식 후 약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초기 생육상태를 확인하고 향후 연구개발의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 조사 결과, 입식된 3배체 굴은 장자도 해역에 안정적으로 적응하며 순조로운 생육 상태를 보였다.

3배체 굴은 일반 굴과 달리 번식에 소모되는 에너지를 성장에 집중하는 특성이 있어 성장 속도가 빠르고 상품성이 우수한 품종으로 알려져 있다. 군산시는 최근 기후변화와 해수온 상승 등으로 양식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기존 김 양식 중심의 산업구조를 보완할 새로운 품종 발굴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올해 1억원을 투입해 신품종(패류) 양식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이번 사업은 수산자원 전문기관인 한국수산자원공단 서해본부와 협력해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수온·염분 등 해양환경 변화와 굴의 성장률, 생존율, 비만도 등을 지속적으로 조사해 경제성과 사업성을 종합적으로 검증할 계획이다.

이성원 군산시 어업정책과장은 "이번 첫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3배체 굴이 장자도. 해역에 안정적으로 적응하고 예상보다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모니터링과 연구를 통해 사업성을 면밀히 검증하고, 김 양식 중심의 산업구조를 보완할 고부가가치 패류 양식 기반을 조성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양식산업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익산시, 착한기업과 함께 만드는 나눔 도시

'착한기업' 가입식 개최

익산시가 지역 기업들과 함께 지속가능한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뜻깊은 발걸음을 내디뎠다.

익산시는 28일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한명규)와 함께 사랑의열매 '우리전북 착한기업' 단체 가입식을 개최했다.

'우리전북 착한기업'은 사회문제 해결과 사회적 책임 실천에 뜻을 둔 기업이 참여하는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법인 기부 프로그램이다. 3,000만 원 이상을 기부했거나 5년 이내 3,000만 원 이상 기부를 약정한 기업이 가입할 수 있다.

이날 행사에는 최정호 익산시장과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관계자를 비롯해 (유)행복한푸드산업, (유)제일자동차공업사, ㈜이삭농산·일등정미소, 동우화인켐㈜ 익산공장 등 4개 기업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에 '우리전북 착한기업'에 가입한 기업은 이들 기업을 포함해 총 5곳이다.

기탁된 성금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익산지역 취약계층을 위한 △저소득 위기가정 생계비 지원 △의료비 지원 △청소년 희망나무 프로젝트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등 다양한 맞춤형 복지사업에 사용된다.

가입 기업들은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나눔활동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영숙 복지정책과장은 "소중한 마음이 꼭 필요한 이웃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고, 기업과 함께하는 나눔문화가 더욱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시, 건설현장 폭염 대응 강화

중대재해 예방교육 개최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

정읍시는 지난 24일 연지아트홀에서 관내 건설업 사업주와 안전보건담당자 등 50여 명을 대상으로 '2026년도 제2차 찾아가는 민간사업장 산업재해 예방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건설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사업장 스스로 위험요인을 발굴·개선하는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여름철 야외 작업이 많은 건설현장의 특성을 고려해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 대응 교육도 함께 진행했다.

강의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북지역본부 건설보건부 정효석 부장이 맡았다. 주요 내용은 △건설현장 중대재해 발생 사례와 대응방법 △위험성평가를 통한 유해·위험요인 발굴·개선 방안 △사업장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 방법 등이다.

특히 추락·부딪힘 등 건설현장에서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고 사례를 바탕으로 위험요인을 찾아 개선하는 방법을 설명해 참석자들의 이해를 높였다.

이와 함께 폭염 속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시간 확보 등 온열질환 예방수칙을 안내했다.

이학수 시장은 "건설현장은 다양한 위험요인이 존재하는 만큼 위험성평가를 통한 사전 예방과 안전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교육이 사업장의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고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조성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한전 전북본부, 군산시에 고향사랑기부금 기탁

1010만 원 전달

<사진=군산시>

한국전력공사 전북본부는 28일 군산시청을 방문해 기탁식을 갖고 고향사랑기부금 1,010만 원을 기탁했다.

이날 기탁식에는 김재준 군산시장을 비롯해 윤여일 한국전력공사 전북본부장, 박상수 군산지사장 등 관계자 5명이 참석했다.

한국전력공사 전북본부 임직원 101명은 군산의 발전을 응원하는 마음을 모아 자발적으로 고향사랑기부제에 동참했다.

이번 기부는 지난해 1,000만 원 기탁에 이어 2년 연속 이어진 것으로,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과 상생의 가치를 실천하는 뜻깊은 사례가 되고 있다.

윤여일 한국전력공사 전북본부장은 "임직원들과 함께 군산의 발전을 응원하는 마음을 전할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며 상생과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는 한국전력공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준 군산시장은 "2년 연속 고향사랑기부제에 동참해 군산을 향한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신 한국전력공사 전북본부 임직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소중한 기부금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리 증진 사업과 군산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군산=지송길 기자

정읍시, 축산농가 '퇴비 부숙도' 검사 지원

악취·환경오염 예방

정읍시 농업기술센터가 축산 악취와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축산농가의 퇴비 부숙도 검사를 지원한다.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0년 3월 25일부터 의무화됐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 대상 농가는 6개월마다 한 차례, 신고 대상 농가는 연 1회 검사를 받아야 한다.

축산농가는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하기 전 검사를 통해 부숙도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검사 결과지는 3년 동안 보관해야 하며, 기준에 미달한 퇴비를 살포하거나 검사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퇴비 부숙도 검사 제도는 충분히 부숙되지 않은 퇴비의 살포로 발생하는 악취와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가축분뇨를 안전한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도입됐다.

검사를 희망하는 농가는 퇴비 시료를 채취해 정읍시 농업기술센터 후관동 1층 종합분석실을 직접 방문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종합분석실로 문의할 수 있다.

/정읍=김정인 기자

군산해경, 마약 거래·투약 불법체류자 검거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채호석)는 과거 국내 어선 선원으로 승선했던 태국 국적의 불법체류 외국인을 포함한 마약류관리법 위반 피의자 2명을 긴급체포해 수사 중이라고 지난 27일 밝혔다.

해경은 야바(YABA) 투약 혐의로 수사 중인 외국인으로부터 판매책에 대한 진술을 확보하고 추적수사를 벌인 끝에 지난 26일 충남 논산에서 과거 국내 어선 선원으로 근무했던 태국 국적의 불법체류 외국인 A씨를 야바 판매 및 소지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이어 A씨를 상대로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전북 익산에 거주하는 태국 국적의 불법체류 외국인 B씨가 A씨로부터 야바를 구매해 투약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하고 같은 날 긴급체포했다.

검거 과정에서 해경은 A씨의 차량 트렁크에서 야바 1정을 압수했으며, B씨의 거주지에서는 투약에 사용한 종이 빨대 등 투약기구를 확보했다.

또한 피의자들은 해경 조사에서 A씨는 야바 판매 및 소지 혐의를, B씨는 야바 매수 및 투약 혐의를 각각 인정했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압수한 야바와 증거물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하는 한편, 압수수색영장과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해양 종사 외국인의 마약범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며, 특히 과거 선원 근무 이력이 있는 외국인 마약사범은 관계기관과 협조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군산=지송길 기자

부안군, 폭염 선제적 대응 강화

행복드림TF팀 가동 현장점검·생활환경 개선 "군민 건강, 안전 최우선"

부안군은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 어르신과 취약계층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선제적 대응에 나서며 군민 체감형 복지 행정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행복드림TF팀 폭염 대응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7월 한 달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현장 점검과 생활환경 개선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전체 대상 가구의 약 65%에 해당하는 21세대에 대해 에어컨 전용 전원선 설치와 노후 누전차단기 교체를 완료하는 등 어르신들이 전기 안전 걱정 없이 냉방기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이번 사업에는 총 1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됐으며 단순한 냉방기 지원을 넘어 실제 사용이 가능한 환경을 만드는 데 중점을 뒀다.

농촌 지역 노후 주택의 경우 전력 과부하와 전선 노후화로 인해 냉방기 사용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으나 이번 개선을 통해 실질적인 생활 변화가 이뤄지고 있다.

현장 점검 과정에서는 안전사고 예방 성과도 나타났다.

상서면 한 어르신 가구의 경우 노후 차단기와 전기선 경화로 인한 화재 위험이 있었으나 점검 중 이상 징후를 조기에 발견해 긴급 공사를 실시함으로써 사고를 사전에 차단했다.

수혜 어르신은 "전기 걱정 때문에 에어컨을 제대로 못 썼는데 이제는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어 올여름이 한결 수월하다"고 만족감을 전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폭염 속에서도 군민 한 분 한 분이 안전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맞춤형 복지를 강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생활 속 불편을 신속히 해결하는 체감형 행정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복드림TF팀은 올해 현재까지 생활 밀착형 민원 1100여건을 처리해 군민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고 있으며 전년 대비 처리 실적 또한 10% 증가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김제시의회 예결특위, 추경심사 '돌입'

제10대 의회 예결위 첫 심의 1조 2,402억 원 규모

김제시의회(의장 이정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 오늘부터 30일까지 2일간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돌입한다.

앞서 김제시의회는 지난 20일 열린 제29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김영자 의원, 부위원장에 장민우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위원으로는 문순자 의원, 최보선 의원, 김진수 의원, 손정애 의원, 정경원 의원 등 총 7명이 선임됐으며, 2027년 6월 말까지 예결위 활동을 이어가게 된다.

이번 예결위에서 심사할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6년 본예산 대비 946억 8,000만 원(8.26%) 증액된 1조 2,402억 4,500만 원 규모다.

이번 추경안은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살처분 보상금 등 민생 안정과 재난 대응에 직결된 재정수요를 중심으로 편성됐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쳐 예결위의 종합 심사 후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김영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제10대 김제시의회 전반기 예결위가 출범한 후 처음으로 맡는 예산 심의인 만큼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라고말했다.

이어 "한정된 예산이 적재적소에 투입될 수 있도록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면밀히 살펴 시민의 소중한 혈세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심사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제=온봉기 기자

부안군-한국해비타트, 지역발전 협력

정원도시·주거복지 기반 지역 활성화 추진

<사진=부안군>

부안군은 지난 27일 군청 3층 중회의실에서 한국해비타트와 지역발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정원도시 조성, 도시재생, 주거복지 등 군 주요 정책사업과 한국해비타트의 대학생 및 청년활동 프로그램(CCYP)을 연계해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군은 현재 줄포만 노을빛 지방정원을 중심으로 한 정원도시 조성과 지역특화형 도시재생사업,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생활인구 확대와 지역 경쟁력 강화에 힘쓰고 있다.

줄포 지역은 풍부한 자연·생태·역사·문화자원을 갖추고 있지만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청년 참여 확대와 외부 자원 유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군은 한국해비타트가 운영하는 CCYP 등 자원봉사·주거복지 기반 공익사업에 대한 행정적 지원과 편의를 제공하고 한국해비타트는 정원도시 조성과 도시재생사업 등 군 주요 정책사업 추진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28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줄포 지역에서 진행되는 2026 하계 CCYP 연합캠프에서는 집수리와 어린이 교육 등 다양한 봉사활동이 펼쳐져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이번 협약은 행정과 민간 공익기관이 함께 지역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라며 "정원도시 조성과 도시재생, 주거복지, 대학생 참여 프로그램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한국해비타트와 협력을 강화해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 기반을 더욱 탄탄히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고창군 '청년이 살고 싶은 도시 만든다'

청년정책협의체 3분기 정기총회 개최

고창군은 지난 23일 고창읍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청년위원 및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3분기 청년정책협의체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총회는 청년 대표로 위촉된 30여명의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고창군 청년정책 관련 주요 현안 사업 안내와 함께 청년 간 자유로운 소통 및 의견 수렴의 시간이 마련됐다.

고창군 청년정책협의체는 '고창군 청년 기본 조례'에 근거해 지난 2024년 12월 공개모집을 통해 첫발을 내딛었다. 현재 직장인, 소상공인, 농업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만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청년 30명으로 구성돼 있다.

협의체 위원들은 2년의 임기 동안 지역 청년들의 현실적인 목소리를 현장에서 수렴하고, 청년 문제 발굴 및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청년의 문제는 청년이 가장 잘 안다'는 슬로건 아래, 청년이 직접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해 군정 수립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아울러 고창군은 청년정책 거버넌스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청년 네트워크 동아리 운영 △청년정책통합정보지 제작 △청년 전용 온라인 플랫폼 구축 및 운영 등 다각적인 지원사업을 활발히 추진 중이다.

군은 오는 9월에 예정단 '청년의 날 행사 및 활동보고회'를 통해 그간 협의체의 활동 성과를 면밀히 점검하고, 수렴된 청년들의 아이디어와 제안을 향후 청년 정책 사업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고창군 관계자는 "청년정책협의체는 청년과 행정을 잇는 든든한 소통 창구이자 정책 파트너"라며 "청년들의 창의적인 의견을 군정에 적극 반영해 '함께 여는 미래, 도약하는 고창'을 만들고 청년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김제사랑상품권 모바일 가맹점' 모집

내달 3일부터 서포터즈 운영

김제시는 실물카드 없이 고향사랑페이 앱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는 김제사랑상품권 모바일(QR) 결제 활성화와 모바일 가맹점 확대를 위해 내달 3일부터 21일까지 3주간 '김제사랑상품권 모바일 가맹점 모집 서포터즈'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포터즈는 시내권 소재 가맹점을 중심으로 직접 방문해 모바일 가맹점 신청 방법과 절차를 안내하고, 점주가 고향사랑페이 앱을 통해 직접 모바일 가맹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생업 등으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기 어려웠던 가맹점주들도 현장에서 편리하게 모바일 가맹점 신청 안내를 받을 수 있어 신청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서포터즈는 개인정보를 직접 수집하지 않고, 점주가 고향사랑페이 앱을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 절차를 안내하고 지원하는 역할만 수행해 개인정보 보호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모바일 가맹점은 김제사랑상품권 가맹점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등록이 완료되면 모바일 결제에 필요한 QR키트를 무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모바일(QR) 결제는 별도의 결제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아 가맹점의 비용 부담을 줄이는 것은 물론, 시민들에게는 더욱 편리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해 지역 내 소비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포터즈 운영이 종료된 이후에도 모바일 가맹점 신청은 연중 가능하다.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고향사랑페이 앱을 통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모바일 결제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편의성을 높이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서포터즈 운영을 통해 모바일 가맹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시민과 소상공인 모두가 더욱 편리하게 김제사랑상품권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고창꽃정원, 오가는길 편해졌다"

수국 등 여름꽃 만개

고창군 대표 관광명소로 떠오르고 있는 고창꽃정원에 여름꽃이 만개한 가운데 인도가 개설되면서 오가는 길이 더욱 편해졌다.

28일 고창군에 따르면 최근 면도 102호선 인도개설 사업이 완료되면서 꽃정원 접근성이 크게 향상됐다.

현재 꽃정원에는 여름대표 꽃인 수국을 비롯해 다양한 다년생 초화류가 개화해 방문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또 꽃정원 내부를 가로질러 흐르는 노동천은 시원한 물줄기로 여름철에 청량함을 더하고, 주변의 푸르른 녹음이 자연경관을 선사하며, 산책로를 따라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기에 안성맞춤이다.

고창군은 가을시즌이 시작되는 오는 9월부터 국화, 해바라기, 메리골드, 사루비아 등 다양한 가을꽃을 식재해 관광객을 맞이할 예정이다.

또한, 방문객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카페 조성사업도 2027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어, 조성이 완료되면 꽃정원과 저수지 풍경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전망형 휴식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고창 꽃정원은 계절마다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사계절 관광명소로 발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경관 개선과 다양한 콘텐츠 확충을 통해 군민과 관광객 모두가 찾고 싶은 고창을 대표하는 명품 꽃정원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김제 미래발전 경영인 포럼' 개최

지역경제 경쟁력 강화

김제시는 김제상공회의소가 28일 지평선산업단지 다목적복합센터에서 제14회 '김제 미래발전 경영인 포럼'을 개최하며 눈길을 끌고 있다고 밝혔다.

김제상공회의소가 주관하는 경영인 포럼은 지역경제를 이끌어가는 기업인들이 변화하는 경영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경영 전략 등을 공유하고, 기업 간 소통과 협력을 통해 지역경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포럼은 경기 둔화와 내수 부진, 고물가 등으로 어려운 경영환경이 지속되는 가운데 지역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지역 기업 대표와 경영인, 유관기관 관계자 등 다양한 경제 주체들이 참석해 전문가 강연을 청취하고, 경영 노하우와 기업 운영 사례를 공유하며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경영인 포럼이 지역 기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보 교류와 배움의 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기업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과 다양한 경영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해 지역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제=온봉기 기자

부안군, 고유가지원금 사용기한 홍보 '집중'

부안군은 고유가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117억원을 지급했으며 107억원이 지역 내 소비로 이어진 가운데 사용기한이 내달 31일 자정까지인 만큼 기한 내 사용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등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급된 지원금으로 사용기한 이후 남은 잔액은 자동 소멸돼 사용할 수 없다.

군은 군민들이 지원금을 기한 내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마을방송, 이장회보, SNS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해 사용기한을 집중 안내하고 있으며 읍·면에서도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김연희 지역경제과장은 "아직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이 있다면 오는 8월 31일까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등 지역 내 가맹점에서 모두 사용하시길 바란다"며 "지원금 사용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큰 도움이 되는 만큼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부안군, 농지 전수조사 기본조사 마무리… 내달 심층조사 착수

부안군은 농지 투기를 근절하고 농지의 실제 소유·이용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추진 중인 2026년 농지 전수조사 기본조사를 이달 말까지 마무리하고 오는 8월부터 심층조사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농지 전수조사는 농지법 시행 이후인 1996년 이후 취득한 관내 농지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올해 조사 대상은 총 8만 3133필지, 약 1만 3876ha 규모로 군은 지난 6월부터 전담팀과 13개 읍·면 조사반을 구성해 기본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기본조사에서는 소유관계, 실경작 여부, 이용현황 등을 확인하고, 불일치 정보를 정비하는 한편 추가 확인이 필요한 농지를 심층조사 대상으로 선별하고 있으며 이달 말 조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그리고 내달부터 12월까지 실시되는 심층조사에서는 기본조사 결과 추가 확인이 필요한 농지를 대상으로 담당 공무원과 조사원이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실제 농업경영 여부와 농지 이용 실태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농지 전수조사는 농지의 실제 소유·이용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농지가 본래 목적에 맞게 이용되도록 관리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라며 "8월부터 현장 중심의 심층조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만큼 농지 소유자와 경작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전북대학교 치과대학 김제 아동센터 아동 구강 검진

김제시는 전북대학교 치과대학(학장 양연미 교수)이 오는 31일 김제 지역아동센터 아동을 대상으로 무료 구강검진 및 진료 봉사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이날 육아종합지원센터 3층 다목적실 및 회의실에서 진행되며, 전북대학교 치과대학 의료진이 지역아동센터 아동을 대상으로 구강검진과 구강질환 상담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에게 전문적인 치과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아동들의 구강건강 관리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지역사회와 대학이 함께하는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성장기 아동의 구강건강은 평생 건강한 치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만큼, 아동들의 구강 상태를 확인하고 구강질환을 조기에 발견하는 등 올바른 구강건강 관리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이번 구강검진 및 진료 봉사활동이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의 구강건강 관리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내 유관기관과 협력해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고창군, 넌버벌 퍼포먼스 '난타' 내달 1일 공연

고창군에 따르면 고창문화의전당에서 넌버벌 퍼포먼스 '난타' 공연이 내달 1일 오후 3시, 저녁 7시에 2회 공연으로 진행된다.

송승환이 제작한 '난타'는 1997년 10월 초연 이후 한국 공연 사상 최다 관객들 동원하며 'K-퍼포먼스의 아이콘'으로 자리잡은 레전드 공연이다.

한국 전통 가락인 사물놀이 리듬을 바탕으로 주방에서 벌어지는 해프닝을 유쾌하고 박진감 있게 풀어낸 한국 최초의 비언어극이다. 칼과 도마 같은 주방 도구가 악기로 변신하는 화려한 연주, 전통 혼례의 깜짝 재현, 관객이 함께 참여하는 만두 쌓기 등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참여형 퍼포먼스가 풍성하게 펼쳐진다.

한국 전통춤과 가락이 어우러지는 삼고무, 가슴을 시원하게 두드리는 압도적 엔딩의 드럼 연주는 한국적 에너지의 정점을 보여주며 국적을 불문하고 관객 모두를 열광하게 만드는 대표장면이다.

김연섭 고창군 문화공연팀장은 "여름 휴가철을 맞이해 특별히 주말 2회 공연으로 남녀노소 모두 함께 즐기는 작품으로 함께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현장서 답 찾는 소통행정 2(題)

남원시, 23개 읍면동 순회 간담 마무리

남원시는 민선9기 출범 후 시민과의 첫 현장소통 행보로 추진한 '읍면동 순회 현장소통'을 28일 동충동 방문을 끝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소통은 지난 7월 13일 노암동과 금동을 시작으로 23개 읍면동을 차례로 방문했으며, 민선9기 시정 방향을 시민과 공유하고 지역 현안과 생활 속 불편사항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충모 남원시장은 순회 기간 동안 각 읍면동을 직접 찾아 지역별 주요 현안과 발전 방향,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했다. 형식적인 보고 중심에서 벗어나 시민들과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며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중점을 두어 현장 중심의 소통행정을 실천했다.

간담회에서는 지역개발, 교통, 농업, 복지, 관광, 생활환경 개선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건의사항이 제시됐으며, 시는 현장에서 즉시 답변이 가능한 사항은 설명하고,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관련 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한 뒤 실국소장이 이장회의에 찾아가 처리 방향과 결과를 공유할 계획이다.

남원시는 이번 순회를 통해 접수된 시민 의견을 단순한 건의사항으로 끝내지 않고 시정에 적극 반영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양충모 시장은 "현장에서 들은 모든 의견을 검토해 시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연결하고, 앞으로도 시민과 더욱 가까이에서 소통하는 시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순창 군민혁신추진단 생활밀착 정책 발굴

순창군은 지난 27일 군청 2층 영상회의실에서 최영일 군수 주재로 제3기 군민소통혁신추진단 2차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군민의 다양한 정책 제안과 군정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군민소통혁신추진단원과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해 1차 정기회의에서 제안된 안건의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군민의 생활과 밀접한 정책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회의에서는 먼저 지난 1차 정기회의에서 제안된 정책 건의사항에 대한 부서별 검토 결과가 보고됐다. 참석자들은 추진 현황을 공유받은 뒤 각 안건에 대한 의견을 나누며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1차 회의에서 논의된 권역사업 활성화 방안, 세월교 안전 안내시설 확충, 도로명 주소판에 마을이름 병기, 공사 추진 전 주민 의견수렴 강화 등 지역 현안과 주민 생활에 밀접한 정책 제안의 부서별 결과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도 진행했다.

또한, 관내 버스 승강장 디자인 통일화, 숙박업 인허가 규제 완화, 섬진강 권역 관광레일 설치 등 군민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불편사항과 군정 발전을 위한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폭넓은 논의가 이뤄졌다.

군은 이번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에 대해 관계 부서의 검토를 거쳐 군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군민소통혁신추진단을 통해 군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군정에 반영하는 소통행정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방침이다.

/순창=박지헌 기자

완주군, 학교 체육관 생활체육 거점으로

문체부 공모사업 선정 운영
삼우·상관초 체육관 주민 개방

<사진=완주군>

완주군이 문화체육관광부의 학교체육시설 개방사업을 통해 농촌 지역의 부족한 체육 인프라를 보완하고 학생과 주민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공모사업에 선정된 완주군과 사단법인 전북풋볼아카데미는 고산면 삼우초등학교와 상관면 상관초등학교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탕으로 2개교 체육관을 지역사회에 개방했다.

현장에는 전담 관리 매니저를 배치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방과 후 체육 돌봄과 주민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청년 체육인 일자리 창출을 돕고 있다.

특히 학생 수 감소와 놀이 문화 부족으로 방과 후 컴퓨터 게임 등에 의존하던 삼우초등학교 학생들은 저녁 시간까지 개방되는 체육관에서 배드민턴 강습과 놀이 체육에 참여하고 있다.

야간 프로그램에는 주민과 학생들이 함께 운동하며 자연스러운 세대 간 교류 공간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상관초등학교는 주민과 시니어를 위한 배드민턴 강습을 운영하고, 초·중학생들에게는 방과 후 풋살 프로그램을 제공해 학생들의 체력 향상과 여가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이혜진 삼우초등학교 교장은 "농촌 지역은 학생들이 함께 뛰어놀 친구와 공간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학교 체육관 개방 이후 아이들이 게임보다 운동을 선택하는 시간이 늘었고, 지역 주민과 함께 어울리며 건강한 공동체 문화도 형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앞으로도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확대해 학생들에게는 건강한 체육 돌봄을, 지역주민에게는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생활체육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완주=김명곤기자

남원시, 농어촌 쓰레기 수거지원 본격 추진

농식품부 신규사업 4개 면 운영
주민 53명 클린농촌반 활동

남원시는 농촌 지역의 경관 개선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26년 농어촌 쓰레기 수거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신규 사업으로, 농촌 지역에 방치된 쓰레기 수거, 영농폐기물 적정 분리, 주민 대상 분리수거 교육 및 캠페인 등을 진행한다. 올해 사업은 주생면, 금지면, 대강면, 보절면 4개소에서 진행하며, 총 53명의 주민들이 8월~12월 중 월 2~4회 우리 지역의 방치 쓰레기를 직접 수거하는 '클린농촌반'으로 활동하게 된다.

사업 수행은 지역에서 농촌 지역 쓰레기 수거·처리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 온 '사회적협동조합 푸르메가 사는 지구'가 담당한다.

사업 추진에 앞서 28일 클린농촌반원과 관계자들이 참석해 '2026년 농어촌 쓰레기 수거지원 사업 발대식'을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 추진 방향과 운영계획을 공유하고, 클린농촌반원의 역할과 책임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 폐기물 취급방법 및 보호장비 착용 방법, 폭염 대응요령 등을 익혔다.

남원시 관계자는 "농촌 정주여건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업"이라며 "안전한 작업환경 속에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깨끗한 농촌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순창군, 장마철 환경오염 불법행위 특별단속

8월 한 달 집중감시 실시
취약지역·배출사업장 점검

순창군이 여름철 집중호우 기간을 맞아 환경오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8월 한달간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을 실시한다.

군은 집중호우 시기에는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 불법행위로 인해 하천과 공공수역의 수질오염 우려가 커지는 만큼, 환경오염 취약지역과 관련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단속 과정에서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 계도와 행정지도를 통해 개선을 유도하고, 위반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는 환경특별사법경찰관이 직접 수사해 검찰에 송치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장마철과 행락철 등 환경오염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시기를 중심으로 오염물질 불법배출과 폐수 무단방류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장마철 폐수 무단방류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수질오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서도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해 환경보전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순창=박지헌 기자

순창군, 대통령기 정구대회서 '맹활약'

하야시다 리코 단식 정상
개인복식 준우승·혼복 3위

<사진=순창군>

순창군 직장운동경기부 남·여 정구팀이 '제64회 대통령기 전국정구대회'에 참가해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정구 명가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높였다.

지난 7월 19일부터 26일까지 8일간 경상북도 문경 국제정구장에서 개최된 이번 대회에 순창군은 남·여 정구팀 선수단 총 14명이 출전해 뜨거운 선전을 펼쳤다.

특히 여자정구팀의 에이스 하야시다 리코 선수의 활약이 돋보였다. 하야시다 리코 선수는 뛰어난 경기력과 안정된 기량을 앞세워 여자 개인단식 1위 우승을 차지하며 정상에 올랐다.

또한 최미선 선수와 호흡을 맞춘 여자 개인복식에서도 값진 2위 준우승을 기록한 데 이어, 혼합복식에서도 3위에 오르는 등 출전한 종목에서 모두 입상하며 순창군 정구의 저력을 전국에 알렸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땀 흘리며 최선을 다해 좋은 성과를 거둔 선수단에게 진심으로 감사와 축하를 전한다"며 "앞으로도 선수들이 최상의 환경에서 훈련하고 경기에 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순창=박지헌 기자

남원, 전국 어린이 소방안전캠프 2년 연속 개최

초등생 880명 3박4일 체험
재난 대응 실전 프로그램 운영

남원시가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와 함께 전국 초등학생 880명을 대상으로 '제4회 제복공무원 자녀 소방안전캠프'와 '제3회 프로미119 안전리더 캠프'를 개최한다.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남원에서 열리는 이번 캠프는 소방청과 남원시 간 상생 협력의 결실이다.

이번 행사는 소방청이 주최, 전북소방본부와 남원시가 공동 주관하며 현대백화점과 소방가족희망나눔이 후원한다. 캠프는 3박 4일씩 2회로 진행되며, 1차(7.27.~7.30.)는 제복공무원 자녀 480명, 2차(8.1.~8.4.)는 일반 초등학생 400명이 참가한다.

참가 학생들은 임실 전북119안전체험관에서 화재·지진·태풍·차량전복 등 재난 체험과 소화기 사용법, 화재대피 요령을 배운다. 특히 항공기 비상탈출, 산악구조, 완강기 체험, 익수자 구조 등 실전 위기 대응 능력을 키운다.

남원 지리산유스캠프에서는 도구 활용, 산불 대피, 불 피우기, 임시 쉘터 구축, 응급처치 등 야외 생존 기술을 체득하며 자립심을 키운다. 행사 기간에는 경찰·해양경찰·군 장비 전시 부스가 운영되며, 마지막 날에는 최근 국보로 지정된 남원 광한루원과 미디어아트 문화공간 피오리움을 방문한다.

양충모 남원시장은 "이번 캠프가 어린이들이 안전 리더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되길 바라며, 청소년들이 안심하고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전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 봉동읍, 민관 협력 환경정화 활동

한솔케미칼 직원 40명 참여
도로변·환경취약지 집중 정비

완주군 봉동읍이 민관 협력을 통한 '깨끗한 봉동 만들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3일 새로 부임한 설선호 읍장을 중심으로 환경정화 활동을 강화하는 가운데, 지역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가 더해지며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에 힘이 모아지고 있다.

봉동읍은 최근 관내 소재한 한솔케미칼 직원 40여 명과 함께 관내 구암리 도로변 일원에서 환경정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활동은 지난 6월 환경정화를 실시했던 구간을 다시 찾아 잔여 쓰레기와 새롭게 발생한 폐기물을 집중 수거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자들은 도로변과 환경 취약지역을 꼼꼼히 살피며 생활쓰레기와 영농폐기물을 수거하는 등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해 구슬땀을 흘렸다.

설 봉동읍장은 "깨끗한 봉동은 행정의 노력만으로는 완성될 수 없으며, 주민과 기업이 함께 참여할 때 더욱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며 "지역사회를 위해 매월 꾸준히 환경정화 활동에 동참해 주시는 한솔케미칼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기자

남원시, '춘향애인 프리미엄' 브랜드 첫선

남원 복숭아 판촉서 첫 공개
포도 등 적용 품목 확대

남원시조합공동사업법인은 전북농협과 함께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농협 하나로마트 삼송점에서 '2026년 남원 농산물 프리미엄 브랜드 홍보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본격적인 남원 복숭아 출하 시기에 맞춰 남원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소비자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특히 남원시 농산물 공동브랜드인 '춘향애인'의 프리미엄 브랜드인 '춘향애인 프리미엄'을 소비자들에게 처음 선보이는 자리로 의미를 더했다.

'춘향애인 프리미엄'은 기존 공동브랜드 '춘향애인'보다 한 단계 높은 품질 기준을 적용한 프리미엄 브랜드이다.

행사기간 동안 남원에서 생산된 프리미엄 복숭아 시식행사와 함께 '춘향애인 프리미엄' 브랜드 배너를 활용한 홍보를 진행하며 신규 브랜드 인지도 제고에 집중했다.

현재 출하 중인 복숭아는 기존 '춘향애인' 포장박스를 사용하고 있으나, 이번 행사에서는 '춘향애인 프리미엄' 브랜드를 적극 홍보해 남원 농산물의 프리미엄 이미지를 소비자에게 각인시키는 데 중점을 뒀다. 향후 포장재 개선과 함께 프리미엄 브랜드 적용 품목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오는 8~9월 출하 예정인 남원 포도는 '춘향애인 프리미엄' 브랜드를 적용해 본격적으로 시장에 선보일 예정으로, 고품질 농산물을 차별화된 브랜드 전략과 연계해 프리미엄 시장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소방서, 휴가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당부

완주소방서(서장 이경승)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계곡과 하천, 야외 물놀이장을 찾는 피서객이 증가함에 따라 물놀이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최근 물놀이 안전사고가 잇따르면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여름철 물놀이 사고는 대부분 순간의 방심과 안전수칙 미준수로 발생하는 만큼 군민과 피서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완주소방서는 물놀이 사고 예방을 위해 △물에 들어가기 전 충분한 준비운동 실시 △반드시 구명조끼 착용 △음주 후 물놀이 금지 △수심을 알 수 없거나 출입이 통제된 위험지역 출입 금지 △기상특보와 상류지역 강우 여부 확인 등 기본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어린이는 얕은 물에서도 미끄러지거나 균형을 잃어 순식간에 익수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절대로 혼자 물놀이를 하게 해서는 안 된다. 보호자는 물놀이를 하는 동안에는 항상 아이 곁에서 시야를 확보하며 지속적으로 안전을 살펴야 한다.

또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무리하게 물속으로 뛰어들기보다 즉시 119에 신고하고, 로프나 구명환, 튜브 등 주변의 부유물을 활용해 안전하게 구조를 시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완주소방서는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8월 17일까지 오성교와 대아관광농원 일원에서 119시민수상구조대를 운영하며 순찰, 안전계도, 응급처치 등 예방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완주=김명곤기자

남원시, 집중호우 대비 하수시설 정비완료

남원시 상하수도사업소는 최근 기후변화로 국지성 집중호우가 빈번해짐에 따라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하수시설 사전점검과 정비를 완료했다.

시는 국지성 집중호우 시 하수시설의 기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관내 하수관로와 빗물받이 등 주요 시설물에 대한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노후·취약시설을 중심으로 정비를 완료했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1억 6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하수도 준설사업을 통해 총 8.4km의 하수관로를 정비하고 하수의 원활한 배수를 확보했다.

또한 침수취약지역에 대해서는 하수관로의 통수능력을 집중 점검하고, 토사와 퇴적물, 각종 이물질 등 배수를 방해하는 장애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등 집중 관리에 나섰다.

아울러 집중호우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긴급복구 장비와 인력을 사전에 확보하고 비상대응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상반기에는 총 2억 5,700만 원을 투입해 하수도 긴급보수공사 85개소를 완료하였으며 배수 불편을 신속히 해소하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 삼봉 완주한방병원 개원 지역 의료서비스 확대

완주지역 최대 규모의 한방병원인 완주한방병원(이사장 서동일)이 28일 완주군 삼례읍 삼봉에 문을 열고 본격적인 진료에 들어갔다.

이날 개원식에는 유희태 완주군수를 비롯한 지역 정·관계 인사와 의료계 관계자,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병원은 서동일 이사장과 배재현 원장을 중심으로 한의사 3명과 가정의학과 의사 1명, 간호·재활·행정 인력 등 직원 30여 명이 근무하며 총 46병상 규모로 운영한다.

완주한방병원은 난치성질환센터와 통증재활센터, 입원치료센터, 스포츠운동재활센터, 피부클리닉, 비만클리닉 등을 갖추고 외래진료부터 입원치료, 재활과 일상 복귀까지 연계하는 양·한방 협진체계를 구축했다.

서동일 이사장은 "완주 주민들이 입원치료와 재활을 위해 타지역을 찾는 불편을 줄이고 가까운 곳에서 체계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신뢰받는 병원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기자

임실군, 녹색환경 조성 박차 학교숲·가로수 조성 완료

임실군이 군민들에게 쾌적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미세먼지 저감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한 학교숲 및 가로수 조성 사업을 순조롭게 마쳤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난 5월 임실군 강진면 호국원부터 부흥마을에 이르는 1.2km 구간에 이팝나무 가로수 조성을 완료했다. 화사한 이팝나무 꽃길이 어우러진 이번 가로수 조성 사업은 지역 주민과 방문객들에게 아름다운 산책 코스 및 경관을 선사하고 있다.

이어 6월에는 오수인화초중고등학교 내 0.1ha 규모의 학교숲 조성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학생들이 자연 친화적인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친환경 휴식 공간을 조성했으며, 자연 체험 학습장으로도 적극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임실군은 하반기에도 녹색 인프라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오는 9월부터는 카페 디디에 일원에 0.4ha 규모의 도시숲 조성 사업을 본격 착수하여 11월 준공을 완료할 계획이다.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쉽게 자연을 접하고 휴식할 수 있는 친환경 공간이자 명품 도시숲으로 만들어갈 계획이다.

/임실=한병열 기자

무주·장수, 취약계층 맞춤 체험 확대

무주군, 취약계층 아동 문화 치유 체험

또래 관계 향상·정서 회복

무주군은 28일 충남 천안시 '오션 어드벤처 워터파크'에서 문화 치유 체험 '문화 톡톡 꿈이 쑥쑥'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또래 관계를 증진하고 신체활동을 통한 스트레스 해소 및 정서적 회복을 돕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와 무주군이 주최하고 무주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무주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주관한 것으로, 지역 내 취약계층 아동·청소년과 봉사자 92명, 안전관리자와 지도자 23명 등 총 115명이 참가해 물놀이와 오락 등 다채로운 공동체 활동을 즐겼다.

한국수력원자력(주) 무주양수발전소, 무주군여성단체협의회, 무주군지역아동센터연합회, 전주기전대학 산학협력단 등 지역 내 기관·단체가 후원해 의미를 더했다.

서정분 무주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은 "지도자 및 안전관리자의 사전 교육과 현장 밀착 관리로 진행된 이번 체험은 일상을 벗어나 또래와 소통하며 건강하게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취약계층 청소년들의 심리·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성장을 도울 수 있는 맞춤형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무주=최의호 기자

장수군, 장애인 태권도 프로그램 운영

장수군장애인체육회 장애인 스포츠 기회 확대

장수군장애인체육회(회장 최훈식)는 장계면 부부태권도장에서 '2026년 장애인 단기 스포츠 체험강좌'의 일환으로 '장애인 태권도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체험강좌는 지역 내 장애인 10명이 참여해 태권도의 기본 품새와 호신술, 격파, 음악줄넘기 등 다양한 종목을 배우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장애인 단기 스포츠 체험강좌'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지원하는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으로 장수군장애인체육회가 주관하고 장수군이 후원한다.

이 사업은 만 5세부터 69세까지의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관내 거주하는 지역 장애인들의 스포츠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적 소외감 해소를 통해 삶의 질을 향상하고 건강한 여가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차주형 사무국장은 "태권도가 2023년부터 전북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대회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면서 태권도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체험강좌로 진행하게 됐다"며 "이번 체험을 통해 장애인들이 태권도를 보다 친숙하게 접하고 생활체육으로 즐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수=최진수 기자

임실군, 여성문화체험교실 수강생 모집

오는 8월 3일부터 신청 접수

임실군이 지역 여성들의 건전한 여가활동과 자기계발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임실군 여성문화체험교실'을 운영하고 내달 3일부터 수강생을 모집한다.

이번 여성문화체험교실은 오는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운영되며, △도자기공예 △목공예 △가죽공예 △타일받침아트 등 총 4개 과정으로 진행된다. 지역 여성들이 다양한 문화체험을 통해 새로운 취미를 발견하고 삶의 활력을 높일 수 있도록 마련됐다.

모집인원은 총 200여 명으로, 임실군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80세 미만 여성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8월 3일부터 8월 7일까지이며, 방문 접수 또는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팩스(FAX)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공정한 참여 기회 제공을 위해 1인 1과목만 신청 가능하며, 지난해 동일 과목 수강자는 해당 과목 신청이 제한된다.

교육은 관촌 도화지도예원, 행복누리원, 농민교육장 등에서 진행되며, 과정별 전문 강사의 지도로 실습 중심의 교육이 이뤄질 예정이다. 참가자들은 직접 자신만의 작품을 만들며 성취감과 문화체험의 즐거움을 함께 느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임실=한병열 기자

무주 설천면지사협, 취약계층 안부 살핀다

무주군은 설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공위원장 양영두 설천면장, 민간위원장 장기환)가 오는 12월까지 '똑똑똑! 안녕하세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고독사 위험 및 사회적 고립 우려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이 사업은 주 1회 건강음료 배달을 통해 안부를 확인하고 계절 음식과 명절 음식 등을 직접 마련해 전달하는 것으로, 중복에는 삼계탕도 전달해 호응을 얻었다.

장기환 설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은 "삼계탕 등 음식은 위원들이 직접 안전하게 조리하고 있다"라며 "작은 관심과 따뜻한 안부가 사회적으로 고립된 이웃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정성을 쏟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함께 나누는 설천면, 다같이 행복한 무주군을 위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을 살피고 돕는 데 협의체가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무주=최의호 기자

임실군, 홍고추 본격 수매

592농가 총 1,450톤 규모 수매 8월 6일 이후 수매가격 최종 결정

임실군 출자기관인 임실고추앤농산물가공판매(주)가 지난 27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약 두달간 2026년산 홍고추 수매를 본격 추진하며, 고품질 임실고추의 안정적인 생산과 농가소득 증대에 나선다.

올해 홍고추 수매는 임실고추앤농산물가공판매(주)에 출자한 농가 가운데 농협과 수매약정을 체결한 592농가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총1,450톤의 홍고추를 수매할 계획이다.

임실고추는 깨끗한 자연환경과 큰 일교차, 풍부한 일조량 속에서 재배돼 색이 선명하고 매운맛과 단맛의 조화가 뛰어나며 향이 진한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우수한 품질을 바탕으로 전국 소비자들로부터 꾸준한 사랑을 받고있으며, 임실을 대표하는 명품 농특산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수매된 홍고추는 4단계 위생 세척과 선별, 열풍건조, 분쇄 등 체계적인 가공공정을 거쳐 고춧가루로 생산된다.

특히, 단계별 위생관리와 철저한 품질관리를 통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위생적이고 안전한 고품질 제품으로 출하된다.

또한, 올해 홍고추 수매가격은 8월 6일 이후 수매진행상황과 전국 산지 출하량, 시세등 시장가격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최종결정할 예정이다. 군은 합리적인 가격결정을 통해 농가의 소득 안정과 소비자의 가격 만족도를 함께 높인다는 방침이다.

임실 홍실 고춧가루는 오는 8월 15일부터 구입할 수 있으며, 임실고추앤농산물가공판매(주) 직영 판매장을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구매, 고객센터(063-643-8949) 를 통해 구매 가능하다.

/임실=한병열 기자

장수군, 전 직원 대상 반부패 청렴교육 실시

청렴 실천 의지 다져

장수군은 지난 27일 공직사회 청렴문화 확산과 공정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2026년 반부패·청렴교육'을 실시했다.

군은 군청 1층 군민회관에서 이정우 장수 부군수를 비롯한 전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교육을 진행했고 공직자의 청렴 의식을 높이는 한편 반부패 실천 의지를 다졌다.

이날 교육은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등 공직자가 갖춰야 할 청렴 의식과 반부패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특히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공직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살펴보고 올바른 대응 방안을 공유하며 공직자의 청렴 실천 역량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군은 이번 교육을 통해 청렴은 특정 부서나 개인이 아닌 조직 구성원 모두가 함께 실천해야 할 핵심 가치라는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고위공직자의 솔선수범을 바탕으로 조직 전반에 청렴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훈식 군수는 "청렴은 공직사회 신뢰의 출발점이며 기관장과 고위공직자의 솔선수범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교육을 계기로 청렴을 일상화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실천해 군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장수군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장수=최진수 기자

장수읍, 하반기 특이민원 대응 모의훈련

민원실 비상상황 대응체계 점검 안전한 민원환경 조성

장수군 장수읍은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서 특이민원 발생에 대비한 모의훈련을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최근 증가하는 악성민원과 돌발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민원담당 공무원과 방문 민원인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훈련에는 행정복지센터 직원과 장수파출소 경찰관 등 10명이 참여했으며, 실제 민원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가정한 실전형 훈련으로 진행됐다.

훈련은 △민원응대 매뉴얼에 따른 민원인 안정 유도 △비상벨 작동 여부 점검 △경찰 긴급출동 요청 및 현장 제압 등 실제 대응 절차를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각 단계별 역할과 협조체계를 점검하는 데 중점을 뒀다.

또한 훈련 이후에는 대응 과정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사항을 공유하며 현장 대응체계를 한층 강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장수=최진수 기자

임실군, 민선9기 출범SNS 이벤트 성황

임실군이 민선9기 출범을 기념해 진행한 공식 SNS이벤트에 총 2,002명이 참여하며 새로운 군정에 대한 높은 관심과 함께 군민과 소통하는 온라인행정의 가능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군은 지난 6일부터 24일까지 19일간 공식SNS를 통해 '민선9기 출범기념 SNS이벤트'를 진행했다. 이번 이벤트는 민선9기의 새로운 출발을 군민과 함께 축하하고, 공식SNS를 활용한 군정홍보와 온라인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이벤트는 임실군 공식 SNS를 구독한 뒤 민선9기 군정목표를 맞히는 퀴즈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단순한 이벤트를 넘어 군민들이 새로운 군정의 비전과 방향을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기획해 참여와 홍보 효과를 동시에 높였다.

이벤트 기간동안 총 2,002명이 참여하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공식 인스타그램 이벤트 게시물에는 좋아요 1,459개와 댓글 1,751개가 달렸고, 페이스북과 유튜브에서도 댓글 참여와 게시물 공유가 활발하게 이어지는 등 민선9기 출범에 대한 기대감이 온라인 공간 전반으로 확산됐다.

참여자 가운데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 모바일상품권을 증정할 예정이며, 당첨자는 29일 군 공식 SNS를 통해 발표된다.

/임실=한병열 기자

진안군, 농어촌 기본소득 읍·면 담당자 시스템 교육 실시

진안군은 28일 군민자치센터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읍·면 및 군 담당자를 대상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빠망카드 시스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농어촌 기본소득 대상자 관리와 카드 발급 업무에 활용되는 관리자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빠망카드 등록·정보변경 및 관리 등 실무 중심의 시스템 활용 방법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군은 지난 6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지역으로 선정된 이후 지난 7월 13일부터 신청 접수를 진행하고 있다. 24일 기준 총 1만 8,191명이 신청을 완료해 74%의 신청률을 기록하고 있다.

앞으로 군은 신청자 자격 검증과 실거주 확인을 거쳐 8월 18일까지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8월 26일까지 카드시스템 등록 및 카드 배부를 완료할 계획이다. 첫 기본소득은 8월 31일 지급되며, 정부 방침에 따라 기존 거주자에게는 7월분 기본소득을 소급하여 3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진안=전길빈 기자

무주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첨단화 추진

첨단 선별 정보시스템 포장라인 냉동창고 3동 보완 공사 마무리

무주군이 농림식품부 공모사업('스마트 APC 전환')으로 무주농산물산지유통센터 첨단화를 추진해 농산물 품질 유지 기반을 확보했다.

이 사업은 무주군이 주력 품목으로 육성하는 '복분자'의 생산량이 급격하게 증가(58ha, 6월 말 기준 389톤 생산, 최근 5년간 5배 이상 증가)하면서 급랭시설 등을 확충하기 위해 추진한 것으로, 5월 말까지 7억 7천만 원을 투입해 첨단 선별 정보시스템(ERP) 포장라인을 완성했다.

또한 지게차 등 장비 구매를 완료하고 복분자 냉동창고 3동에 대한 보완공사(건축, 냉동설비 제작·설치)를 마쳤다.

무주군은 이를 기반으로 복숭아를 비롯한 농산물 산지 유통경쟁력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센터 운영을 실현한다는 방침으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운영위원회(행정·농협·농업생산자단체·유통전문가)를 통해 △사용 수익허가 승인, △무주·무풍산지유통센터 사용료 부과 승인 건 등을 확정했다.

무주군이 농림식품부 공모사업('스마트 APC 전환')으로 무주농산물산지유통센터 첨단화를 추진해 농산물 품질 유지 기반을 확보했다 <사진=무주군>

노창환 무주군 부군수는 "농산물의 입고, 선별, 재고관리부터 정산, 출하까지 첨단 선별 정보시스템을 구축한 것은 무주 농산물 신뢰도 향상은 물론, 농가 입출고·정산 등의 효율성을 높여 유통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동력을 마련한 것"이라며 "시스템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범 운전과 데이터 연동 검증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무주=최의호 기자

진안군, 폭염 대응 '양우산·생수·부채' 비치

군민 건강 보호 나서

진안군은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주요 진안군청 현관 앞에 양우산, 생수, 부채를 비치하여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이번 사업은 야외활동 중 갑작스러운 폭염을 피할 수 있도록 군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비치된 양우산은 햇빛과 자외선을 차단하는 공용 물품으로, 사용 후에는 다음 이용자를 위해 반드시 원래 비치 장소에 반납하면 된다. 또한 생수는 더위로 지친 군민들이 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1인 1병씩 제공하며, 부채는 필요한 군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군은 폭염특보가 지속되는 동안 물품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부족한 물품은 신속히 보충하는 한편, 무더위쉼터 운영과 폭염 행동요령 홍보도 함께 추진하여 군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특히 군은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야외활동 자제 △충분한 수분 섭취 △규칙적인 휴식 △폭염 취약계층 안부 확인 등 폭염 예방수칙을 적극 실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진안=전길빈 기자

JBT 전북타임스 Jeon Buk Times
2026년 7월 29일 수요일

김정 4-H연합회 전북자치도 회장 부안군에 장학금 500만원 기탁

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재단은 4-H연합회 전북특별자치도 김정 회장이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장학금 500만원을 기탁하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고 밝혔다.

김정 회장은 평소 지역 인재 양성에 깊은 관심을 갖고 꾸준히 장학사업에 힘을 보태왔으며 현재 재단 이사로 활동하면서 재단의 발전과 지역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번 기탁은 미래 세대가 올바른 가치관과 공동체 의식을 갖춘 인재로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마련됐다.

김정 회장은 "작은 나눔이 한 학생의 삶을 바꾸고, 그 학생이 다시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선순환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학생들이 자신의 꿈뿐만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소중함도 배우며 성장해 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대창, 군산시에 장학금 4천만원 기탁

누적 장학금 1억 8천만원 꾸준한 사회공헌 실천

㈜대창(회장 조시영)이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에 장학금 4천만원을 기탁했다.

대창그룹 조시영 회장은 2009년부터 매년 군산시에 지역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금을 기탁하며 꾸준한 지역 사랑과 사회공헌을 실천해온 대표적인 군산 출신 기업가로, 그간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에 기탁해온 장학금만 누적 1억 8천만원에 이른다.

그 외에도 ㈜대창에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전북특별자치도 서울장학숙, 성산초등학교, 성산면 등에도 기부를 이어오며 지역에 누적 6억3천여만원의 사회공헌 활동을 실천하며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다.

이번에 기탁한 장학금 4천만원은 조시영 회장의 뜻에 따라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의 교육지원 사업과 군산에서 서울 지역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의 장학금, 군산성산초등학교의 영어 특성화사업 지원 등의 용도로 사용될 예정이다.

7월 28일 열린 기탁식에서 조시영 회장은 "장차 우리 사회를 이끌어나갈 학생들의 성장 지원에 보탬이 되고자 한다"며 장학금 기탁의 뜻을 밝혔다.

/군산=지송길 기자

고창 성내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들과 어르신 반찬나눔

고창군 성내청소년문화의집과 지역 청소년들이 지난 15일부터 24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직접 반찬을 만들어 어르신들에게 나눠드리는 '온기 나눔 반찬데이'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자유중·고창중 학생 10명이 참여해 메추리알 장조림, 깻잎무침 등 직접 조리했다. 정성으로 완성된 반찬은 고창율계고령자복지아파트에 거주하는 독거노인 가정에 직접 전달되어 따뜻한 온기를 더했다.

특히 '온기 나눔 반찬데이'는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지난 2024년과 2025년에 이어 올해 2026년까지 3년째 꾸준히 지속되어 온 성내청소년문화의집의 대표적인 지역사회 공헌 프로그램이다.

성내청소년문화의집 관계자는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나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한수원 한빛원자력본부, 부안군에 성금 2천만원 기탁

냉방용품 지원 성금 전달 경로당 11개소에 사용 예정

부안군은 한국수력원자력(주) 한빛원자력본부(본부장 김현주)가 28일 지역 어르신들의 시원하고 건강한 여름 나기를 위해 부안군에 냉방용품 지원 성금 20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탁식은 권익현 부안군수와 김현주 한빛원자력본부장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에 전달된 성금은 보안면, 변산면, 상서면, 줄포면 지역의 경로당 11개소를 대상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특히 장기간 사용으로 노후되어 고장 위험이 크고 냉방효율이 떨어졌던 에어컨과 냉장고를 교체하는 데 집중 투입되어, 무더위에 취약한 어르신들에게 쾌적한 실내 휴식 공간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김현주 한빛원자력본부장은 "유례없는 무더위 속에서 지역 어르신들이 조금이나마 땀을 식히고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직원들의 마음을 모았다"라며, "앞으로도 한빛원자력본부는 지역사회와 긴밀히 소통하며 주민들의 복지 향상과 상생 발전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매번 지역에 애정을 갖고 온정을 베풀어 주는 한빛원자력본부 덕분에 어르신들이 한층 시원한 여름을 맞이할 수 있게 되었다"라며, "전달해주신 소중한 성금은 도움이 꼭 필요한 경로당에 신속히 전달하여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지내실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다"라고 말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국제라이온스 김제·부안연합회 고향사랑기부금 상호 기부

김제시는 지난 27일 국제라이온스협회 전북지구 김제·부안연합회 김동명 취임 부총재(2026~2027)가 고향사랑기부금 1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탁식은 국제라이온스협회 전북지구 김제·부안연합회 부총재 이·취임식 현장에서 진행됐으며, 이용식 이임 부총재(2025~2026)와 함께 뜻을 모아 김제시와 부안군에 상호 기부를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명 취임 부총재는 "국제라이온스협회의 정신을 담아 진행한 이번 상호기탁이 두 지역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우리는 봉사한다'라는 국제라이온스협회의 모토를 따라 지역사회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며 봉사를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국제라이온스협회 이·취임 부총재들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보내주신 소중한 마음은 우리 지역의 주민 복지를 위해 가치 있게 사용하겠다"고 화답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완주군 청소년들, 여행경비 마련 장터 운영

지역사회 따뜻한 응원 받아

완주군청소년센터 '고래' 여행동아리 '루트11'이 최근 양일간 고산농협 앞에서 여행경비 마련을 위한 장터를 운영하며 지역사회의 따뜻한 응원을 받았다.

'루트11'은 2011년생 청소년 11명으로 구성된 여행동아리로, 청소년들이 스스로 여행을 기획하고 준비하며 다양한 경험을 쌓기 위해 활동하고 있다.

장터에서는 삶은 옥수수와 레몬에이드, 아이스티를 판매했으며, 장터 준비부터 홍보, 판매, 정리까지 모든 과정을 청소년들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했다.

특히 고산농협에서는 장터 운영을 위한 장소와 천막, 테이블 등을 지원했으며, 지역 주민들은 직접 물품을 구매하며 청소년들의 도전을 응원하며 거스름돈 찬조를 이어가기도 했다.

/완주=김명곤 기자

정읍시장애인복지관, 장애유형별 요리교실 실시

정읍시장애인종합복지관이 장애인 16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요리교실을 운영해 조리기술 습득과 자립생활 능력 향상을 지원했다.

이번 요리교실은 장애유형별 평생학습도시 지원사업의 하나로 지난 4월 16일부터 7월 23일까지 총 15회에 걸쳐 진행됐다. 교육은 참여자의 장애 특성과 생활환경을 고려해 발달장애인 과정과 독거 남성 장애인 과정으로 나눠 운영했다.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자립식당101'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조리기술을 익히고 스스로 식사를 준비하는 경험을 쌓아 자립역량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독거 남성 장애인을 위한 '한끼완성연구소'에서는 균형 잡힌 식습관을 형성하고 건강한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일상에서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조리법을 교육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전북서 19년째 이어진 헌혈…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전주·익산·군산·정읍·고창 지역에서 지난 6일부터 24일까지 18일간 신천지자원봉사단 전북지역연합회의 460명이 헌혈 버스를 통해 헌혈에 참여했다.

헌혈에 나서는 사람 자체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전체 헌혈 건수는 2015년 308만2918건에서 2025년 283만 9632건으로 10년새 약 8% 줄었고, 같은 기간 20대 이하 청년층의 헌혈 참여 비중은 77%에서 52.3%로 15% 넘게 급감했다.(국가통계포털 KOSIS)

전북지역연합회의 단체 헌혈은 이런 상황 속에서 2008년부터 19년째 이어지고 있다. 헌혈증서 기부 캠페인과 함께 이 활동은 지역의 건강 나눔 문화로 자리 잡았다.

이용우 연합회장은 "성경은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가르친다"며 "헌혈이 그 가르침을 실천할 방법의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북타임스 문화부

〈一事一言〉

천호성 교육행정, '조직표' 아닌 '교실'을 바꿔야 성공한다

최준호
전북타임스 대표

성공적인 교육행정의 이정표를 세워주길 기대하며

교육청의 조직 개편 소식은 언제나 요란하다. 미래교육에 대응한다느니, 현장 지원을 강화한다느니 하는 수식어와 함께 국·과·팀의 이름이 화려하게 간판을 바꾼다. 그러나 정작 개편의 온기가 도달해야 할 학교 현장의 반응은 차갑다. "이름만 바뀌었지 달라진 게 없다"는 냉소가 지배적이다. 조직표는 거대해지고 본청의 자리는 늘어났는데, 교실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의 업무 다이어리는 여전히 과부하 상태다.

그동안 반복되어 온 관행적이고 전시 행정식 조직 개편의 한계다.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치적 쌓기용으로 추진된 조직 재편은 교육청 내부의 세력 확장이나 행정 기구의 비대화로 끝나기 일쑤였다. 본청에 기획 부서가 신설될 때마다 현장에는 지원 서류와 보고 공문이 도리어 늘어나는 아이러니가 되풀이되었다. 현장과 결여된 상명하달식 개편이 초래한 필연적 결과다.

이제 첫발을 내딛는 천호성 교육행정이 과거의 우를 범하지 않으려면, 조직 개편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 성공하는 교육행정의 기준은 교육청의 덩치가 얼마나 커졌느냐가 아니라, '교실에서 교사와 학생이 얼마나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하느냐'에 달려 있다.

진정한 현장 중심 행정이 되기 위해 천호성 교육감이 가장 먼저 단행해야 할 과제는 명확하다. 허울뿐인 본청 중심의 기구 개편을 지양하고, '실질적인 업무 이관'을 이루어내는 것이다.

우선, 교육청 본청은 거대한 집행 기관이 아닌 정교한 정책 수립 및 지원 기관으로 슬림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늘어난 인력과 권한을 각 지역 교육지원청과 학교지원센터로 대폭 이관해야 한다. 계약제 교원 채용, 학교폭력 심의, 시설 관리 및 복잡한 계약 업무 등 교사의 손을 묶어두고 있는 과중한 행정 업무를 지원센터가 직접 떠안아 처리해 주는 구조적 결단이 필요하다. 교사가 행정 서류에 묻혀 지내는 한, 아무리 화려한 교육 정책도 교실 안에서 꽃을 피울 수 없다.

둘째로, '사업총량제'의 엄격한 적용이다. 신규 사업이나 부서를 신설할 때 기존의 실효성 없는 사업과 공문 제출 요구를 정량적으로 폐지하는 인과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비대해진 행정은 끊임없이 새로운 일거리를 만들어 학교로 내려보내는 습성이 있다. 이 고리를 끊어내지 못한다면 어떠한 개편도 현장에는 피로감만 더할 뿐이다.

셋째, 조직 개편의 성과를 평가하는 주체를 '본청'이 아닌 '현장 교직원'으로 바꿔야 한다. 개편 후 스스로 성공이라 셀프 치하할 것이 아니라, 일선 교사와 행정실 직원들이 실제로 업무 경감을 체감했는지를 객관적 지표로 평가받는 대담함이 필요하다.

교육은 교실에서 이루어진다. 교사가 수업과 생활지도라는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교육청이 존재하는 유일한 이유다.

천호성 교육행정에 거는 지역사회의 기대는 크다. 과거의 관행에 갇힌 '보여주기식 행정'을 과감히 털어내고, 교실의 숨통을 트여주는 '실질적 업무 이관'을 성취해 내길 바란다. 조직표의 화려한 변신이 아닌, 교사의 환한 미소와 교실의 활력으로 증명되는 성공적인 교육행정의 이정표를 세워주길 기대한다.

사 설

점검은 시작일 뿐, 실행으로 증명되길 바라면서

전북특별자치도가 최근 안전관리부터 미래산업까지 도정 전반을 아우르는 점검회의를 열고 재난 대응과 핵심 현안을 살폈다. 여름철 자연재해와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AI, 방위산업, 새만금, 첨단산업 등 미래 성장동력의 추진 상황까지 함께 점검했다는 점에서 균형 잡힌 도정 운영 의지를 엿볼 수 있다.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과 지역의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는 일은 행정이 가장 우선해야 할 책무인 만큼 이번 점검 자체는 충분히 의미가 있다.

그러나 행정의 평가는 회의 횟수나 점검 실적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아무리 많은 대책회의를 열고 현황을 보고받아도 실제 현장에서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행정의 성과가 아니라 기록에 불과하다. 도민이 원하는 것은 '점검했다'는 보고가 아니라 '문제가 해결됐다'는 결과다.

안전 분야도 마찬가지다. 폭염과 집중호우, 산사태, 물놀이 사고는 사전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취약지역을 확인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 위험시설은 즉시 보수하고, 재난 대응체계는 실제 상황에서도 작동할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사고는 회의실이 아니라 현장에서 발생한다. 결국 안전은 계획이 아니라 실행에서 완성된다.

미래산업 역시 속도가 경쟁력이다. AI와 방위산업, 탄소산업, 새만금 개발 등은 전북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과제다. 하지만 투자 유치와 국가예산 확보, 기업 지원은 발표만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인허가 지연은 없는지, 기업의 애로사항은 무엇인지, 정부와의 협의는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실천력이 필요하다. 전국 지자체들이 같은 목표를 향해 치열하게 경쟁하는 상황에서 늦은 행정은 곧 기회를 잃는 행정이 될 수 있다.

특히 이제는 사업 추진 상황을 단순히 보고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성과를 수치와 결과로 평가하는 행정으로 전환해야 한다. 언제까지 무엇을 완료할 것인지, 어느 부서가 책임질 것인지, 추진이 지연되면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 책임과 일정이 분명할 때 도민도 행정을 신뢰할 수 있다.

전북은 지금 새로운 도약의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 안전은 한순간의 방심으로 무너질 수 있고, 미래산업은 한 번 기회를 놓치면 다시 따라잡기 어렵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또 다른 점검회의가 아니라 현장에서 체감되는 변화다.

이번 전북도의 전방위 점검이 일회성 행사로 끝나지 않기를 바란다. 점검은 출발선일 뿐이다. 행정의 진정한 평가는 계획이 아니라 성과에서, 보고가 아니라 실행에서 나온다. 전북도는 이제 말과 점검이 아닌 실행과 결과로 도민 앞에 증명하는 도정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오늘의 시

너무 이른 또는 너무 늦은 / 나희덕

사랑에도 속도가 있다면
그것은 아마
솔잎혹파리가 숲을 휩쓰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한 순간인 듯 한 계절인 듯
마음이 병들고도
남는 게 있다면
먹힌 마음을 스스로 달고
서 있어야 할
길고 긴 시간일 것입니다

수시로 병들지 않는다 하던
靑靑의 숲마저
예민해진 잎살을
마디마디 세우고
스치이는 바람결에도
빛 그림자를 흔들어댈 것입니다

멀리서 보면 너무 이른,
또는 너무 늦은
단풍이 든 것만 같아
그 미친 빛마저 곱습니다

시인 약력 : 1966년 충남 논산 연무대 출생. 연세대 국문학과와 동 대학원 박사과정을 졸업했다. 1989년 중앙일보 신춘문예에 시 '뿌리에게'가 당선되어 등단했다.

| 독자투고 |

생명을 구하는 속을 꺾는 사회, 우리는 안전합니까

드라마 〈낭만닥터 김사부〉에는 많은 시청자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든 장면이 나온다. 만취한 환자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한 여성 구급대원이 결국 뇌사에 이르고, 장기기증으로 마지막 생명을 나눈 뒤 세상을 떠나는 이야기다. 피를 흘리며 쓰러진 구급대원의 모습과 남겨진 가족들의 모습을 보며 많은 이들이 눈시울을 붉혔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잔인한 진실이 있다. 이 장면은 결코 드라마 속 장면이 아닌, 대한민국에서 반복되고 있는'현실'이라는 점이다.

소방청의 최근 6년간'119구급대원 폭행 피해 현황'에 따르면 구급대원 폭행은 2020년 196건, 2021년 248건, 2022년 287건, 2023년 249건, 2024년 269건으로 매년 수백 건씩 발생하고 있다. 이틀에 한 번꼴로 시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출동한 구급대원이 오히려 폭력의 피해자가 되고 있는 셈이다.

특히 폭행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곳은 좁고 밀폐된 구급차 내부다. 폭력이 시작되면 몸을 피할 공간조차 없고, 경찰이 도착하기 전까지 속수무책으로 폭행을 견뎌야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출동한 구급대원이 정작 자신의 안전은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이다.

가해자들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 "홧김에 그랬다"는 말로 책임을 회피하지만, 그 뒤에 남겨진 구급대원들은 육체적 상처뿐만 아니라 극심한 정신적 트라우마와 무력감에 시달린다.

구급대원을 향한 폭행은 단순히 개인 간 폭력 사건이 아니다. 출동한 구급대원이 현장에서 폭행을 당하거나 업무 수행이 불가능해지는 순간, 또 다른 생명의 골든타임도 함께 위협받는다. 결국 구급대원을 향한 주먹은 한 사람만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응급의료 안전망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인 것이다.

이제는 변화가 필요하다. 구급대원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더욱 강화해야한다. 또한 주취자 관리 역시 지자체와 의료기관이 함께 책임지는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그 누구도 타인의 생명을 구한다는 숭고한 사명감의 대가로 폭력을 감내해서는 안 된다. 오늘도 좁은 구급차 안에서 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묵묵히 폭력을 견뎌내고 있을 구급대원들, 이제는 사회가 그들의 안전한 방패가 되어야 할 때이다.

군산소방서 대응예방과
소방장 이병생

JBT 전북타임스 Jeon Buk Times
www.jeonbuktimes.co.kr
2011년 10월01일 創刊/ 등록번호 전북 가 -00022(일간)
우)5499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진북동)5층
발행. 편집인 송민순 편집국장 장정철 인쇄인 김은주
대표전화 282-9601 업무국 팩스 282-9604 편집국 팩스 283-8800
전주지사 010-9645-4113 군산지국 010-8641-7942 무주지국 010-6411-0835 부안지국 010-7247-3947
중앙지사 010-9678-4271 남원지국 010-2285-3987 임실지국 010-8642-6502 고창지국 010-2258-3734
인후지사 010-8640-6855 익산지국 010-9560-3075 진안지국 010-2433-1721 완주지국 010-3672-0308
팔복지사 010-3015-4791 김제지국 010-4572-6112 장수지국 010-8626-6049
송천지사- 010-5242-3694 정읍지국 010-2800-2934 순창지국 010-5312-7293
•구독료 :월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 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김제시, 교통복지 도시로 도약!

스마트로 잇고 복지로 채운다

김제시 교통정책이 시민의 일상과 이동권을 세심하게 살피는 생활밀착형 교통복지로 확장되고 있다.

고령화 사회 진입, 자율주행차 상용화, 개인형 이동수단 확산 등 교통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시는 지능형 교통시스템(ITS)과 버스정보시스템(BIS)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 교통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교통약자·학생·농어촌 지역 주민 등 대상별 맞춤형 교통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특히 시는 그동안 구축해 온 스마트 교통 인프라를 유지·관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시민이 실제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교통복지 정책과 연계해 교통행정의 방향을 '관리 중심'에서 '체감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다.

민선 9기를 시작한 지금, 시민들의 이동편의를 극대화할 스마트한 교통 인프라 확충과 촘촘한 복지체계 구축으로 선진 교통복지 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다.

□ BIS·ITS 기반 스마트 교통체계 고도화

시 버스정보시스템(BIS) 구축사업은 버스 운행정보와 도착 예정 시간, 현재 위치 정보 등을 제공해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증진하는 사업으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국가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총사업비 14억원으로 시내버스 차량 단말기 43대를 장착하고 관내 주요 시내버스 승강장 120개소에 버스정보안내기(BIT)를 설치 완료했다.

오는 2027년도에는 정류장 단위로만(200m 이상) 위치가 표시되어 버스가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이는 현재의 버스정보시스템(BIS)을 GNSS 기반의 초정밀 위치정보 서비스로 한단계 발전시켜 버스가 실제로 어디를 지나고 있는지 1~5m 단위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ITS)은 기존 교통체계에 전자·제어·통신 등 첨단기술을 결합하여 변화하는 교통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도로와 차량의 흐름을 실시간으로 최적화하는 스마트 교통 인프라 구축사업이다.

시는 그동안 국가공모사업으로 스마트교차로 66개소, 교통흐름 CCTV 12개소, 신호온라인시스템, 교통정보수집시스템, 보행신호 자동연장시스템 등 다양한 지능형 교통시설을 구축·강화해 왔으며,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상시 유지 보수 및 점검 관리를 추진하며 시민들에게 정확한 교통정보와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을 제공해 왔다.

□ 시민 이동권 보장을 위한 수요맞춤형 교통복지 확대

시는 마을에서 정류장까지의 거리가 400m 이상 떨어진 관내 마을에 주 6일(월~토) 수요맞춤형 공공형(행복콜) 택시 21대를 운행하여 대중교통 취약지역 주민들에게 저렴한 요금으로 이동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2018년 4개 읍면동 16개 마을로 시작하여 2026년 6월 현재, 19개 읍면동 198개 마을로 확대되었고 지난해에만 약 5만 명이 이용할 정도로 시민 호응도가 매우 높은 사업이다.

이와 함께,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총 30대(장애인콜택시 23대, 임차택시 7대)를 연중무휴 24시간 운행하고 있으며, 올해 10월 중 와상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콜택시 1대를 신규 도입하여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의 이동권 향상과 공익적 가치실현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 2024년 8월을 시작으로 친환경 수소 저상버스 6대를 도입한 데 이어 올해도 5대를 추가로 도입할 예정이다.

친환경 수소 저상버스는 수소와 산소만으로 전기를 만들어 구동되는 무공해 자동차인 만큼 배기가스와 온실가스 감축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으며, 김제와 전북도청을 잇는 26번 노선과 새만금을 잇는 102번 노선, 그리고 시내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수요맞춤형 시내권 순환버스 100번, 101번 노선에 투입되어 운행하고 있으며, 올해 도입할 친환경 수소 저상버스 5대분 역시 김제시 주요 노선에 투입되어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 학생의 등하굣길을 안전하게 지키다, 100원 버스와 통학택시 지원

시는 학생들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간 교육 접근성 격차를 줄이기 위해 학생 맞춤형 교통복지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관내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 시내버스 100원 요금제와 농·어촌지역 학생 통학택시 지원 사업은 학생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표적인 교통 복지사업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큰 호평을 받고 있다.

202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학생 100원 요금제는 2025년 교육 발전특구 시범 사업으로 전액 국비 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관내 초·중·고 학생은 등·하교는 물론, 김제시 어느 지역이든 단돈 100원만 있으면 부담 없이 이동할 수 있다.(교통카드 결제 시에는 50원의 추가 할인이 적용된다.)

또한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어촌 소재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열악한 통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17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통학택시 지원사업은 2026년 현재 11개교 45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통학택시 11대(법인8대,개인3대)를 운영하고 있다.

학생들은 1회 500원의 저렴한 요금으로 통학택시를 이용할 수 있으며,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학생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덜고 농촌지역 학생들이 보다 안정적인 교육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함께 2025년 1월 1일부터 전 시민을 대상으로 최소(일반) 20%에서 최대(저소득층) 53%까지 대중교통비를 환급해 주는 K-패스 환급 지원사업은 그동안 일반으로 분류되어 교통비의 20%를 환급받고 있던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하여 2027년도부터는 30%로 확대해 시행할 계획이며, 김제시는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와 더불어 실생활에서 대중교통 이용을 더욱 활성화 하기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통복지 정책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 안전한 통학로 조성과 주차환경 개선으로 교통사고 사전예방

시는 교통약자를 비롯한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는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와 주차환경 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먼저 오는 8월부터 검산초등학교와 동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을 시행한다. 어린이 통행이 많은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는 시속 30km, 통행이 상대적으로 적은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는 시속 50km를 적용해 보행 안전 확보와 교통 흐름 개선을 함께 도모할 계획이다.

시는 시간제 속도제한 시행에 맞춰 대상 구간 내 인도 방호울타리, 중앙차선 분리대, 교통신호등, 발광형 표지판 등 교통안전시설도 함께 정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운전자 혼선을 줄이고 어린이 보호구역의 안전성을 높이는 한편, 시행 이후에도 교통사고 발생 여부, 운전자 준수율, 주민 의견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해 시설을 점검·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시는 민선8기 공약사업의 일환으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관내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 개선에 힘써 왔다. 백석초등학교, 금구초등학교 등 어린이보호구역을 중심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교통신호등, 횡단보도 야광투광기, 차선 및 노면 도색, 교통표지판, 방호울타리 등 교통안전시설을 신설·교체하고 지속적인 유지·보수를 실시해 어린이 통학로 안전을 강화해 왔다.

또한 상가와 주택 밀집지역의 주차난 해소와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도 지속 추진하고 있다. 김제시는 지난해 준공한 구봉마을, 중부 지역아동센터 뒤, 고려신경외과 뒤 공영주차장 3개소를 포함해 현재까지 총 35개소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했으며, 내년 말까지 요촌제20공영주차장(사자탑 회전교차로 인근) 1개소를 추가 조성할 계획이다.

□ 고령운전자 사고 예방과 시민 교통안전 의식 제고

시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사전 예방을 위해서 관련 조례에 따라 70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면허증을 자진해서 반납하는 경우, 지역상품권 2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작년 반납자는 총 250명으로 연간 목표치를 달성한 데 이어 올해도 4월 말까지 58명이 넘는 고령운전자가 면허증을 반납하여 관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감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시민 교통안전 의식 향상을 위해서 매년 행락철, 설·추석 명절 전 교통안전 수칙을 홍보하는 교통안전 캠페인과 함께 신학기에는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김제경찰서, 김제모범운전자회 등과 함께 안전운행 및 보행자의 교통안전 수칙 준수 캠페인을 추진하는 등 관내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서 전방위로 노력하고 있다.

□ 생활밀착형 교통 인프라 확충

시는 올해 상반기 시내버스 승강장 7개소, 정차표지판 9개소와 함께 탄소발열의자 11개소 설치를 추진했으며, 이후로도 이용객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 신규로 추진한 스마트 냉난방기 설치 사업은 유동 인구가 많은 시청오거리 외 8개소에 버스 승강장을 우선 대상으로 선풍기와 난방기 기능을 갖춰 대중교통 편의를 증진하는 사업으로, 인체 동작 감지 센서와 온도 자동 센서가 설치되어 승강장에 있는 사람을 자동 인식하여, 여름에는 선풍기 기능을, 겨울에는 온풍기 기능을 자동으로 작동시킨다. 스마트 냉난방기는 밀폐형 구조가 조건인 스마트 승강장과 어울림 쉼터와 달리 관내 대다수인 개방형 승강장에도 설치가 가능한 만큼, 대중교통 이용 시민의 편의가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추진 중인 교통쉼터 조성사업은 최근 들어 시민 호응도가 높은 김제시 대표 교통정책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재작년 3월에 전통시장 승강장에 전북특별자치도 최초로 대중교통 어울림 쉼터를 조성한 데 이어 작년 4월에는 전통시장 인근 사자탑 승강장에 어울림 쉼터 2호점을 추가 조성하여 전통시장을 찾는 대중교통 이용객들이 예전보다 훨씬 편안하게 시내버스를 기다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쉼터 내에 냉·난방기, TV, 버스정보안내기(BIT) 등을 설치하여 전통시장과 인근 병원 등을 찾는 어르신들에게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는 평가다.

향후, 교통쉼터 추가 수요조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대중교통 이용 환경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시는 기존 옛 김제온천 스파랜드 부지에 임시 화물자동차 차고지를 마련했지만,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외진 곳에 있어 접근성이 떨어지고 적재물 도난 위험 등의 문제가 있어 2020년부터 총 사업비 84억 원을 투입하여 교동 314-56번지 일원(26,457㎡)에 268 주차면 규모의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조성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 사업이 준공되면 도심 내 화물 운수종사자 근로여건 개선 및 화물자동차의 매연, 소음, 불법 밤샘주차 등에 따른 시민 불편 문제도 동시에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교통이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첨단 기술을 활용한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 대중교통 편의시설 확충, 보호구역 정비, 주차환경 개선,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등 교통망 혁신과 인프라를 지속 확충할 계획"이라며 "시내버스 요금제 할인,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운영,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등을 통해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는 체감형 교통복지 체계를 더욱 촘촘하게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교통정책 현장에서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철저한 점검과 제도적 지원을 강화해 나갈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이동 편의와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언제 어디서나 막힘없는 쾌적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김제=온봉기 기자